

조선 ‘策括’류 類書에 관한 一考

An Analysis on “Ch’aekkwal,” the Compilations of References for the Civil Service Exam in Joseon

심 규 식 (Sim, Kyusik)*

◁ 목 차 ▷

- | | |
|-----------------------|--------|
| 1. 서론 | 4. 결론 |
| 2. 策括의 체재와 내용상 특징 | <참고문헌> |
| 3. 策括의 제작 및 지식의 유통 정황 | |

< 초 록 >

본고는 조선 후기 지식 세계의 발전 양상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일반 사대부 지식의 기저를 형성한 과거시험 참고서용 유서를 ‘策括’로 명명하고, 그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해당 서적군의 범주를 보다 명확히 한다. 刊行本 『經書類抄』·『經史集說』·『玉纂』과 筆寫本 『性理說集錄』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책판은 과거 시험에 출제되는 典章制度 관련 정보를 집록했다. 博學을 추구하지 않고, 性理學 학설을 중심에 두었다. 권위 있는 서적과 그 학설을 직접 또는 2차 인용하고 편찬자의 私見을 첨부하지 않았다. 조선의 類書 편찬 전통을 계승해서 ‘門’의 항목을 두고, ‘用人’ 등 試題로 빈출한 주제를 수록했다. 이들 서적은 편찬자와 편찬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으며, 저자의식에 강한 바탕을 두기보다는 상업적 또는 개인적 필요에 의해 제작·유통되었다. 책판은 조선 일반 지식 세계의 문헌학적 경계선을 보여준다. 동시에 類說·科詩 등 학문적·문학적 영역의 성립과 발전에 영향을 끼쳐, 총체적인 문화사 연구의 한 축이 된다.

要語: 策括, 類書, 科詩, 科擧, 大科, 文科, 對策文, 四書疑, 經書類抄, 經史集說, 玉纂, 性理說集錄, 玉海, 古今事文類聚, 性理大全書, 槐山 靑松沈氏 沈壽賢後孫家 古文書

< ABSTRACT >

This article analyses characteristics of “Ch’aekkwal (Compilations of references for the Civil service exam).” Prior to a follow-up research on a development of intellectual world in the late Joseon era, this article examines three widely-distributed published books (*Gyöngsö Yuch’o*, *Gyöngsa Jipsöl*, and *Okch’an*) and a manuscript (*Söngnisöl Jimnok*), clarify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aekkwal. Ch’aekkwal compiled references for narrow knowledge on fields of statecraft and Neo-Confucianism rather than aim for broad knowledge. They cited or re-cited authoritative books and did not attach personal theories of the editor. Their editor are unknown, since they were published in needs for a commercial interest or an educational purpose for family members, with a lack of an awareness as an author. Ch’aekkwal show a bibliographic boundary of the late Joseon intellectuals. They are major historical material for a research on cultural history, with an influence on academical and literary areas of the contemporary Joseon.

Key words: Ch’aekkwal, Leishu (Category books), Examinational poetry, Civil service exam, Higher literary examination, Sasöü, *Gyöngsö Yuch’o*, *Gyöngsa Jipsöl*, *Okch’an*, *Söngnisöl Jimnok*, *Yuhai*, *Gujin Shiven Leiju*, *Xinglidaquanshu*, Cheongsong Sim family old documents

* 고려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sim890917@me.com)
투고일: 2019년 11월 20일 최초심사일: 2019년 12월 2일 게재확정일: 2019년 12월 18일
서지학연구, 제80집, 297-335, 2019. <https://doi.org/10.17258/jib.2019..80.297>

1. 서론

1.1 연구 의도

한문학의 연구는 자료의 한계 상 문집 등의 문헌 자료가 전하는 유명 작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문헌 자료를 남기지 못한 일반 양반들과 이들이 총체적으로 형성한 조선의 지식 세계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 이들은 배척당하고 목소리를 박탈당해 오히려 나름대로의 변별성을 지닌 서발턴(Subaltern)이 아니라, 조선의 사회, 문화, 학문의 기저에 융화되어 있어 종종 그 존재를 잊게 된다. 이들이 형성한 일반 지식 세계를 보여주는 자료 중 하나가 ‘策括’류 類書이다.

책괄은 과거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참고서의 일종으로, 經典과 史書뿐 아니라 권위 있는 詩文集·類書·註解書를 선정해서 그 정보를 집록했다. 이들 유서는 상업적으로 널리 유통되거나 가문 내에서 전승되어 기저의 지식 세계를 형성하고 계승시켰다. 책괄은 조선의 일반 지식인들이 어떠한 서적을 중요하다고 인식했으며 그 정보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했는지를 보여준다. 본고는 조선 지식 세계의 기저와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지식의 발전을 다각도로 고찰하고자 하는 후속 연구의 사전 작업이다. 현 단계에서는 조선에서 제작된 책괄의 성격과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일련의 유서를 범주화하여 연구의 범위를 설정하고자 한다.

唐代 『藝文類聚』가 편찬되고, 宋代에 이르러 『太平御覽』, 『冊府元龜』 등의 官撰 유서와 『古今事文類聚』, 『山堂考索』 등의 私撰 유서가 편찬되어, 유서는 양적·질적으로 크게 확대되었다.¹⁾ 송대 유서 편찬의 증가는 科擧制度의 일반화를 바탕으로 한 사대부 계급의 서적문화 형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인다.²⁾ 그 증거로, 南宋의 王應麟(1223-1296)이 편찬한 『玉海』는 博學宏辭科(博學宏詞科·博學紅詞科·博學鴻詞科)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³⁾ 고려 중기 이후, 문인들이 원나라의 制科에 응시하기 위해 중국 유서를 다수 수입했는데,⁴⁾ 『옥해』 역시 그 중 하나였다. 본고에서 분석할 조선의 『玉纂』은 ‘옥과 같은 지식들(玉)이 가득하다(海)’는 『옥해』의 서명을 모방해서 ‘옥과 같은 지식들을 모았다(纂)’는 의미의 서명을 선택한 듯하다.

조선의 유서들은 대부분 저자가 알려져 있지 않고,⁵⁾ 그 편찬 의도와 분류 항목의 원칙을 해설한 序文 및 凡例가 없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과거시험용 유서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지닌 공통적 특성을 다각도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유서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과거시험용 유서가 존재한

1) 최환, 『한·중 유서문화 개관』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8), 18-35.

2) 물론 唐代에 白居易(772-846)가 편찬한 『白氏六帖(白氏經史事類六帖)』과 같이 經史類를 초록하는 전통은 그 이전부터 시작되었다(張祝平, “解讀域外漢籍與古代文學研究的拓展—以研究明代文學二個問題爲例—”, 『中國學術文學與朝鮮漢文學』, 대동한문학회 발표자료집(2016. 1), 156.).

3) 紀昀 등, 『玉海, 附辭學指南』 欽定四庫全書 子部十一 類書類 提要.
“宋自紹聖, 置宏辭科, 大觀(1107-1110)改辭學兼茂科. … 應麟尤爲博洽, 其作此書, 卽爲詞科應用.”

4)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제2권 (과주: 태학사, 2012), 492.

5) 최환, “한국 유서의 종합적 연구(II) - 한국 유서의 간행 및 특색,” 『중어중문학』 32(2003. 6), 75-77.

다는 사실을 언급했다.⁶⁾ 본고는 과거 試題로 출제된 典章制度를 중심으로 경전과 주석서의 권위 있는 논설을 집록하고, 방각본 또는 필사본 형태로 유통된 유서를 범주화하여 '策括'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기존 유서 연구를 보다 심화시키고자 한다.

과거 참고서로 사용된 유서를 지칭하는 '책괄'은 북송부터 청 말기까지 통용되었다. 다만 근대 한·중 학계에서는 이 용어를 활발히 사용하지는 않았다. 중국의 경우, 劉咸炘(1897-1932)이 1928년에 『續校讎通義』에서 유서를 總類·句隸·類考·專類·策括로 분류했다. 그는 책괄을 “과거시험장에 쓰이는 서적으로, 체재를 갖춘 것이 매우 빈잡한데, 순수하게 子部나 史部가 아닌 것은 포함되어야 한다. 『群書會元』과 『源流至論』과 같은 것이 이것이다.”⁷⁾라고 설명하고, 성명·씨족 등을 정리한 譜牒書와 초학자를 위한 蒙學書 등은 책괄에서 제외했다. 이후 중국의 일부 연구에 '책괄'이 산견한다.⁸⁾ 한국에서는 2015년에 이상욱이 이에 대해 보다 상세히 논했다.⁹⁾ 본고는 '책괄'이 과거시험용 유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따른다.

1.2 '策括'류 유서 명명의 문제와 연구 대상 설정

'策括'이라는 용어는 문헌에서 熙寧 4년(1071)에 蘇軾(1037-1101)이 올린 劄子 『議學校貢舉狀』에 처음 보인다. 이는 당대에 일반적으로 사용된 용어였다.

근래의 선비들이 經·史를 찬집하여 분류하고 時務를 엮어 모아 '策括'이라 부르는데, 질문에 대비하는 조목들을 거의 다 찾아 뽑아서, 때에 맞추어 표절하고 앞뒤를 바꾸어 有司를 현혹시키건만 有司가 관별하지를 못합니다.¹⁰⁾

당대 과거에서 詩賦를 폐지하고 策論 등을 위주로 하자는 의론이 있자, 소식이 이것에 반대하며 내세운 근거이다. 經史를 類抄한 유서(또는 초보적인 메모)들이 크게 성행해, 과거시험장에서 이 내용을 표절하더라도 채점관이 알아채지 못할 지경이었다. 소식은 문장력을 평가하지 않고 단순히

6) 최환(2003), 87.; 김영선, “韓國 類書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89.; 酒井忠夫, 『中國日用類書史の研究』(東京: 國書刊行會, 2011), 157-166.
 7) “策括者場屋之書, 具體大類繁, 不純子史者當入, 如『群書會元』·『源流至論』之類, 是也.” (劉咸炘, 『續校讎通義』. 陳惠美, 「<古今圖書集成·經籍典>徵引文獻考論」(臺北: 萬卷樓, 2017), 18-19.에서 재인용.)
 8) 劉海峰, “‘策學’與科學學,” 『教育學報』 5(2009. 6), 116.; 沈俊平, “晚清石印舉業用書的生產與流通: 以1880-1905年的上海民營石印書局爲中心的考察,” 『中國文化研究所學報』 57(2013. 7), 245.
 9) “책괄류는 주제별로 관련 문구나 지식들을 재분류해 놓은 서적 종류이다. 통상적으로 건도문(乾道門), 곤도문(坤道門)이나, 천도문(天道門), 인륜문(人倫門)으로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형태적으로는 유초류 과문 참고서와 같으나, 특정한 과문 문체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르게 분류하였다. 이러한 서적들은 물론 과거시험 준비에도 유용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당대에 전고(典故) 사전이나 백과사전처럼 일반적인 공구서로 사용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책은 시중에 상당히 많다. 대표적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소장의 『寅撮』을 들 수 있다.” (이상욱, “조선 과문(科文)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62.)
 10) 蘇軾, 『宋名臣奏議』, “議學校貢舉狀” 권79.
 “近世士人, 纂類經史, 綴緝時務, 謂之策括, 待問條目, 搜抉畧盡, 臨時剽竊, 竄易首尾, 以眩有司, 有司莫能辨也.”

지식의 양만을 기준으로 삼는 위험성을 지적했으나, 그가 비판에 사용한 용어에는 ‘對策文(策)에 필요한 정보들을 한데 모은(括)’ 참고서의 성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다.

송말원초의 王申子(생몰년미상)는 『大易緝說』의 문답에서 “근래 성리학을 강학하는 이들이 육경은 버려두고 語錄만을 보면서, 심한 경우에는 程朱의 어록을 가지고 策括·策奪과 같이 편집한다. 이러한 것이 자신의 몸과 마음에 과연 어떠한 이로움이 있을지 모르겠다.”¹¹⁾고 말했다. 청대의 章學誠(1738-1801)은 “시사를 헤아리고 요점을 자세히 짚어내는 것은 방각본 策括이 이미 갖추지 않은 바가 없다. 과거를 보는 선비가 학문을 미리 닦아놓지 않았으면 방각본 책판을 취해 비슷해서 서로 부합하는 것을 택해서 名數(名目)를 기억했다가 과거시험장에서 익숙한 듯이 對策文을 쓰면 열에 일고여덟은 맞출 수 있다. 비록 학문에 익숙한 선비[宿學之士] 몇 명이 진귀하게 답안을 써 내더라도 (책판을 사용한 이들과) 터럭만큼도 다를 수 없다.”고 말하며,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지 말고 학문을 정밀히 연찬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精學之士] 차별점을 얻어야 한다고 보았다.¹²⁾ 조선에서도 『성호사설』 제10권 人事門의 『東坡論科試』에 이익이 책판의 폐단이 발생한 원인에 관해 논한 내용이 있고, 『일성록』 정조 23년(1799) 5월 22일 기사에 綾州의 진사 南燧이 진달한 農書가 “경전을 잡다하게 인용해서 산만한 것이 책판과 같다.”는 備局의 비판이 있어, 이 용어가 어느 정도 통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논의에 의하면 책판은 대략 ‘과거시험에 필요한 정보’를 ‘유서의 형태로 집록, 정리’해서 학문의 본령에는 어긋나나 ‘참고서로서의 실용성’을 극대화한 ‘방각본’ 서적이다. 조선에서도 이러한 책판이 제작·유통되었다. 李種徽(1731-1797)의 『韻府詩彙後序』에 이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경험담이 보인다.¹³⁾

내가 예전에 영남[嶠南]을 잠시 유람했는데, 짐 꾸러미 속에 詩卷을 갖고 있지 않았다. 두보[少陵]의 시를 읽고 싶어 고을 선비에게 물어보니, ‘근래에 咸陽板 韻考(韻書)가 있는데, 거기 수록된 『杜律(虞註杜律)』이 매우 불만하다.’ 했다. 내가 사달라고 부탁했는데, 필체가 졸렬하고 글자가 닳아빠진데다 페이지의 윗부분과 좌우의 공란에 『시경』, 『두율』, 『西崖樂府』¹⁴⁾를 줄줄이 적어서 복잡 자질구레한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미 구해달라고 했으므로 결국 웃으며 그대로 두게 했다. 그 뒤에 科場에 책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금하라는 새 명령이 매우 엄했다. 그렇지만 韻考 1책만은 소지를 허락했다. 이에 항상 보던 깨알 같은 글자의 책을 뱃속에 숨겨 가지고 가고자 했으나 하지 못하게 되어서, 손에 1권만을 꺼내 보여주었다. 나졸은 자세히 보고도 품속에 나머지 4권을 숨긴 것은 알지 못했기에, 應製할 때에 왕왕 효과를 거두었다. 당시에 金縉의 『彙語』, 祝穆의 『事文(古今事文類聚)』, 『經史集說』, 『類苑叢寶』 등의 서적들은 모두 높은 書閣에 묶어두어서 그 정교함이 쓸모가 없었으니, 비록 이 책과 그 장단을 비교하자 하더라도 할 수가 없다.¹⁵⁾

11) 王申子, 『大易緝說』, “太極圖或問” 권2.

“近時講性理者, 幾於捨六經而觀語錄, 甚者將程朱語錄而編之若策括策套, 此其於吾身心, 不知果何益乎.”

12) 章學誠, “與史氏諸表侄論策對書.” 鄭吉雄, 『浙東學術研究』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7), 330-332.에서 재인용. “揣摩時事, 撻抉要略, 則坊刻策括, 亦已無所不備. 科舉之士, 學不素豫, 則取坊刻策括, 擇與近事相關合者, 記其名數, 臨場如款以對, 十亦可得七八. 雖使宿學之士數家珍而出者, 不能毫髮異也. (중략) 精學之士, 不屑於策括, 見策問之與己合者, 引伸觸類, 精理名言, 真可刊爲著述. 其疎闊者, 則以己意支展而已, 轉不能如攻策括者誦拾名數無遺失也.”

13) 『韻府詩彙』는 이종휘가 영남 시인들의 시를 彙集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 전하지 않는다. 제목으로 볼 때, 『韻府群玉』 및 『大東韻府群玉』과 마찬가지로 平水韻의 운목에 따라 시를 분류했을 것이다.

14) 명나라 李東陽의 『西涯樂府』를 말한다.

이종회가 두보의 시집을 구하고자 하자, 지방 선비는 詩選集 대신에 시가 附記된 坊刻本 韻書를 추천했다. 그 인쇄 상태는 졸렬했지만, 이종회는 이 책을 과거시험장에 숨기고 들어가는 데 성공해서, 공란에 적힌 시들을 참고해서 應製에 큰 도움을 얻었다. 그는 『휘어』, 『고금사문유취』 등 훌륭한 책이라 하더라도 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갈 수 없어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 방각본 운서는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익살스럽게 이야기했다. 여기에 그가 과거 참고서로서 열거한 4종의 서적은 어휘집인 『휘어』, 거질의 중국 유서인 『고금사문유취』, 조선의 대규모 유서 『유원총보』, 책판의 전형인 조선 간행 『경사집설』을 포함한다.

이 글에 언급된 韻考가 韻書일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747년에 편찬된 朴性源의 『華東正音通釋韻考』일 가능성도 있다. 2권1책이다. 이 운서는 『奎章全韻』이 나오기 전까지 상당한 권위를 지녀, 1787년에 정조가 중간을 명하면서 『正音通釋序』를 짓기도 했다. 이 운서는 韻字의 한중 발음을 병기하되 訓義가 극히 간략하므로 과거시험장에 가지고 들어가도 부정행위에 사용할 수 없었다. 만일 이종회가 구입한 韻考가 『동석운고』를 의미한다면, 당시 민간에서 책의 공란에 참고(또는 커닝)에 용이한 정보를 추가해서, 표지는 원본과 동일하되 5책으로 증보한 판본을 유통시킨 정황이 될 것이다. 이는 중국의 『增廣詩韻集成』의 상단 1/3면에 대구가 되는 시어를 31門으로 분류한 유서 『詞林典腋』이 합본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태였을 것이다. 『사립전액』은 작자가 미상이고, 청대의 어느 시기에 저술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⁶⁾ 이 역시 민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듯하다.

‘과거시험’을 목적으로 하면서 ‘유서’의 형태를 띤 서적은 그 종류가 다양하기에, 논의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다. 이상옥이 ‘책판류’의 예시로 제시한 국립중앙도서관 필사본 『인찰』은 일종의 어휘집이다. 중국의 君王妃와 주요 문인 등을 시대별로 분류하고, 그들에 대한 정보를 밝혔다. 이것은 ‘원문을 초록·집성한’ 것은 아니므로 유서의 엄밀한 정의에는 들어맞지 않는다. 『인찰』 외에도 『片錦』(규장각 소장) 등이 조선에서 편찬되었는데, 본고에서는 이러한 어휘집은 논의에서 제외하고



<그림 1> 『增廣詩韻集成』의 상단에 『詞林典腋』이 합철된 형태

15) 李種徽, 『修山集』“韻府詩彙後序” 권2.

“余嘗薄遊嶠南，行李未携詩卷，欲覽少陵詩，謀諸邑士，爲言近有咸陽板韻考，而中有杜律，甚可觀。余要與買來，筆拙而字利，紙之頭及左右板隙，列以詩經杜律西崖樂府，叢雜冗瑣無可言。然業已求焉，遂笑而留之。其後科場禁挾冊，新令甚嚴，然獨許持韻考一冊。於是常日蠅頭之書，至欲剖腹而不可得，而吾獨手一卷，表而出之，邏卒孰(熟)視而不知其中藏四卷書，及其應製，往往收其效。當此之時，如金縢之彙語，祝穆之事文，經史集說，類苑叢寶之屬，皆束之高閣而無所用其巧，雖欲與此較其長短，而不可得矣。”

16) 『詞林典腋』의 말미에 기재된 例言에 “癸卯夏日銘三氏識.”라는 기록이 있다. 이 계묘는 雍正 원년(1723), 乾隆 48년(1783), 道光 23년(1843) 등으로 추정된다. 저자 銘三은 고증할 수 없다.

자 한다. 『聚精會神』, 『文字類集』 등 모범이 되는 詩文을 채록한 類抄類는 원문을 분류·초록했다는 점에서 광의의 유서에 포함되고 또한 과거 준비를 목적으로 하지만, 특정 詩·賦 등 문학 장르만을 수집 대상으로 삼았으므로 경전의 정보를 중심으로 하는 책팔과는 별도의 범주에 넣어야 한다.

책팔은 조선시대에 다수 편찬되어, 상업 출판 및 가문 내 개인 제작본 전체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다음 4종 유서의 특징을 우선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이들을 ‘책팔’로 범주화한 근거를 제시하여 후속 연구를 위한 자료 검토 단계로 삼는다. 앞의 3종은 조선에 널리 유통된 대표적 刊本 책팔로, 현재 국내외의 기관에 다수가 전한다. 마지막 1종은 가문 내에서 제작된 필사본 책팔로, 간본 책팔과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면서도 일정한 차별점이 보인다.

① 經書類抄 5卷3冊

木板本 : 四周雙邊 半郭 18.3 x 13.0 cm, 有界, 9行18字 小字雙行,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
21.2 x 16.0 cm

表題: 經書類抄

版心題: 經抄

書根題: 經抄

冊次: 天地人

刊記(附錄末): 甲午[1894]仲春重刊

印記: 미상 1과(圓形陽刻)

『경서유초』에 대해서는, 『鏤板考』 중권의 子部 類書類 마지막 항목에 다음과 같이 잘 설명되어 있다. “『경서유초』 3권. / 撰者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음. 사서오경의 句語들을 잘라 부문을 나누어 종류별로 모았으니, 經義를 발취해 묶은[拈括] 서적이다. / 尙州牧에 목판이 있다. 印紙는 3첩 12장이다.”¹⁷⁾ 李令翊(1738-1780)은 6촌동생 李忠翊(虞臣, 1744-1816)에게 경서의 말을 뽑은 『경서유초』의 유용성을 말한 바 있어,¹⁸⁾ 江華學派를 포함한 조선후기 지식인들이 이러한 유서를 활발히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四書五經 등 경서를 중심으로 정보를 집록했다.

『경서유초』는 20여개 기관에서 59종을 보유한 것이 확인된다. 그 중 목판본 48종 외에 목활자본, 필사본이 있고, 도화자본도 1종이 있다. 편찬자와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대략 17세기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규장각본 필사본(3권4책)에는 유일하게 『御製序文』이 있는데, 『경서유초』 御製序에 대해서는 고증할 수 없다.¹⁹⁾ 위의 서지사항은 고려대 소장 목판본(대학원 E1 A8 1-3)으로, 1894년의 것으로 추정되는 重刊 刊記가 있다. 이 중간본은 “經書類抄附”의 5개 部가 추가된 증보판이다.

17) 徐有渠, 『鏤板考』 子部 類書類 中권.

“經書類抄三卷. 不著撰人名氏. 割裂五經四書句語, 分門類彙, 蓋經義拈括之書. 尙州牧藏. 印紙三牒十二張.”

18) 李令翊, 『信齋集』 “答虞臣” 冊二.

“子見今選舉家所謂經書類鈔二冊乎? 其言皆無不善, 非作冊者能無不善, 所類鈔皆經書故也.” 이영익이 언급한 서적은 제목이 『經書類鈔』로 약간의 차이가 있고 2책본이나, 널리 유통된 『經書類抄』와 완전히 다른 서적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듯하다.

19) 이정효, “『經書類抄』의 引用方式에 관한 小考,” 『서지학연구』 54(2013. 6), 388-393.



<그림 2> 고려대 소장 木板本 『經書類抄』의 표지, 卷首 및 重刊本 刊記

② 經史集說 15卷7冊

木活字本：四周雙邊 半郭 19.4 x 12.3 cm, 有界, 19行23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23.2 x 15.5 cm

表題：經史集說

版心題：經史集說

冊次：一一七

印記：미상 1과(方形陰刻)

『경사집설』은 『경서유초』에 비해 다양한 서적에서 정보를 뽑았는데, 『性理大全書』 등의 전집류와 기존 類書 등을 포함한다. 李種徽(1731-1797)의 『韻府詩彙後序』에 언급되는 것으로 볼 때, 그 유용성을 인정받아 당대에 널리 유통되었던 듯하다. 목판본, 목활자본, 도활자본, 포활자본 등이 있다. 다만, 『경사집설』 고활자본의 板種에 대해서는 異論을 요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3장에서 후술한다. 위의 서지사항은 고려대 소장 목활자본(만송 E1 A6B 1-7)이다.



<그림 3> 고려대 소장 匏活字本(木活字本과 동일) 『經史集說』의 표지와 권수

③ 玉纂 19卷7冊

木活字本：四周單邊 半郭 20.8 x 15.3 cm, 有界, 17行22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
25.9 x 19.2 cm
印記：金錫曾(1655-?), 祖揆, 清風

王應麟(1223-1296)의 『玉海』의 영향을 받아,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과거 준비를 위한 유서로서 간행된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소개하는 3종 간본 책판 가운데 가장 분량이 많다. 분류 항목과 표제어 역시 가장 수효가 많고 상세하다. 일본 오사카부립 나카노시마도서관 소장본(韓13-11)의 서지사항이다.



<그림 4>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 소장 木活字本 『玉纂』의 표지와 권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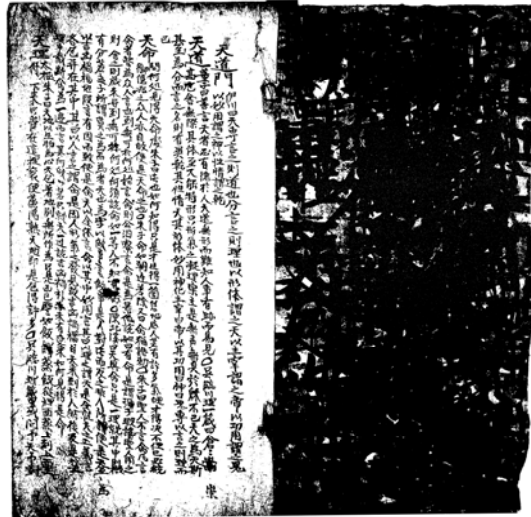
이상은 상업적으로 유통된 간행본 책판의 서지사항이다. 이하 1종은 문중 제작 필사본이다.

④ <性理說集錄> 不分卷1冊

筆寫本：無郭無界, 行字數不定(約16行44字)；22.5 x 12.5 cm

표제와 권수제가 없다. “性理說集錄”이라는 제목은 필자가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槐山青松沈氏 沈壽賢後孫家 古文書” 자료 중에서 본 서적을 발견하고, 그 내용과 형식을 근거로 임시 설정한 것이다. 편저자와 제작 시기는 미상이다. 그러나 沈鎬(1685-1753, 沈壽賢의 長子)이 수제자 吳泰魯(생몰년미상)에게 ‘경건 중 성현의 忠·信·敬에 대한 말들을 集錄’하는 학습을 권한 바 있어, 이에 따라 오태로가 작성한 것을 뒤에 심육 가의 후손 또는 다른 제자가 轉寫했을 가능성이 있다.²⁰⁾ 본 서적은 生員試 四書疑에 대비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책판 중 가장 좁은 범위의 내용을 수록했다. 四書와 그 註疏에 등장하는 개념들을 표제어로 설정하고, 『性理大全書』, 『朱子語類』 등에서 표제어를 해설하는 구절을 초록해서 모았다.

20) 심규식, “青松沈氏 古文獻을 통해 본 樗村 沈鎬의 생애와 학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178-180.



<그림 5> 『性理說集錄』의 卷首

2. 策括의 체제와 내용상 특징

2.1 '門'의 분류 항목

1446년, 安平大君(1418-1453)이 王安石의 시를 “天地人 三才에 따라 항목을 나누고 분류해서 모으도록(以天地人三才分門類集)” 지시해 『匪懈堂精選半山精華』를 간행했다.²¹⁾ 여기에 天文門·地理門·人事門의 분류를 두었다. 이러한 분류 체계를 갖춘 시 선집(分門纂類書)에 보이듯, ‘門’을 분류체계의 명칭으로 사용하는 의식은 이미 조선에 깊게 자리 잡은 상태였다. 이후의 어휘집인 『新編彙語』(1653년), 『新補彙語』(1684년), 유설인 『芝峯類說』(1614년), 『瑣說類纂』(숙종대 許穆이 편찬한 것으로 알려짐), 『星湖僊說』(18세기)²²⁾이 門을 분류 명칭으로 사용했다. 또한, 조선의 대표적 유서 중 하나라 할 수 있는 『類苑叢寶』(1646년) 역시 門의 분류항목을 두었다. 본고에서 논할 책팔류 유서에서도 天道門, 人倫門 등의 분류항목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중국의 주요 유서들 중에는 門의 항목을 둔 경우가 거의 없다. 『北堂書鈔』(隋), 『藝文類聚』(唐), 『初學記』(唐), 『事文類聚』(唐), 『太平御覽』(宋), 『冊府元龜』(宋) 등, 송나라까지의 주요 유서들은 대부분 ‘部’의 분류용어를 사용했다. 이 외에는 『士林廣記』(宋) 등 ‘類’를 사용한 예가 있다.

21) 심경호, 『安平』 (서울: 알마, 2018), 480.

22) 후에 安鼎福이 재정리한 『星湖僊說類選』은 5門의 분류체계를 5篇으로 바꾸고, 편의 하위항목으로 門을 두었다.

‘門’이 사용된 것으로는 17세기 초(明)에 이르러 『喻林』이 나왔고, 보다 광의의 유서류로서는 1726년(淸)에 완성된 『駢字類編』이 있을 뿐이다. 물론 ‘항목을 분류한다’는 의미에서 ‘分門’이라는 용어가 흔히 사용되어, 예를 들어 『山堂肆考』(萬曆 연간)의 四庫全書提要에 “(宮商角徵羽의 5集) 中을 45門으로 나누고, 門을 다시 각각 子目으로 나누어서 대체로 다른 유서들과 같다.”²³⁾고 설명되어 있으나, 실제 서적을 열람해보면 ‘門’의 분류용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조선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는 서적 중 ‘門’의 분류항목을 사용한 중국 서적을 소급해 올라가자면, 북송대에 趙汝愚(1140-1196)가 편찬한 『國朝諸臣奏議(宋名臣奏議)』가 있다. 『국조제신주의』의 송·원 간본은 극히 희귀한데, 규장각에 2책 零本이 소장되어 있다.²⁴⁾ 이 서적은 12개 대분류항목²⁵⁾ 아래에 소항목을 두고, 관련 주제에 관한 역대 신하들의 奏議를 분류해서 집록했다. 백과사전적 지식 전달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으나, 원문을 초록하고 분류했다는 점에서 광의의 유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국조제신주의』의 분류 체계를 모방한 『歷代名臣奏議』가 조선에 널리 읽혔다는 점으로 볼 때, 『국조제신주의』 역시 조선에 일정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인다. 한편 송대의 『分門集註杜工部詩』 역시 門의 분류 체계를 두어, 세종 25년(1443)에 간행된 『纂註分類杜詩』의 기반이 되었다. 『분문집주두공부시』의 편찬자는 미상인데, 이 역시 민간에서 과거시험 등의 목적을 위해 색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듯하다. 조선에서도 같은 이유로 두시 및 『分類補註李太白詩』 등 官印 분류 주석서가 유행했다. 이 외에 원나라 劉應李의 『翰墨全書』에 諸式門·活套門·冠禮門·婚禮門… 등 35개 門을 두고, 그 하위항목으로 類를 두었다. 이 유서는 조선에 유통되고 복간되었으며, 李滉이 『한묵전서』로부터 주희의 『科擧私議』를 인용했다.²⁶⁾ 『한묵전서』에 官職門·儒學門·科擧門·人倫門·人事門·天文門·地理門 등의 항목이 있는 것은 후술할 조선 책판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조선 책판의 분류체계는 중국의 지식 분류 의식을 일부 수용하되, 조선 지식인들이 능동적으로 발전시킨 지적 전통을 계승하고 있다 하겠다.

2.2 典章制度 및 時務 중심의 분류항목과 표제어 설정

『예문유취』 등의 전통 있는 유서들 역시 과거 공부에 큰 도움을 주었겠지만, 고려 말 수입된 『옥해』 등의 서적은 과거에 보다 특화된 유서가 필요하다는 의식을 촉발시켰을 것이다. 공민왕 13년(1364)에 강남 지역의 군벌 方國珍이 고려 조정에 『옥해』를 헌상했으며, 조선 태종 11년(1411)에는 역대 국왕의 御容을 봉안하는 제도를 상고하기 위해 『옥해』를 참조했다. 또한 『옥해』는 『樂學

23) 紀昀 등, “『山堂肆考』提要” 欽定四庫全書 子部十一 類書類.

“中分四十五門, 門又各分子目, 大致與他類書相等.”

24)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的 분석,” 『서지학연구』 52(2012. 9), 258-261.

25) 君道門·帝系門·天道門·百官門·儒學門·禮樂門·刑賞門·財賦門·兵門·方域門·邊防門·總議門.

26) 심경호(2012), 526-532.

軌範』에 인용되기도 했다.²⁷⁾ 광해군 5년(1613)에 구입한 서적 목록 중에서도 『옥해』를 찾아볼 수 있다.²⁸⁾ 앞서 언급했듯이 『옥찬』은 『옥해』의 제목을 모방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에서 직접 유서를 편찬할 역량을 갖추었음을 보여준다. 『옥찬』의 편찬 연대는 미상이다. 그런데 일본 오사카시의 부립나카노시마 도서관에 소장된 19권7책본 목활자본 『옥찬』을 통해 그 편찬 연대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 판본의 권수에는 “淸風”, 권말에는 “祖揆”, “金錫曾”의 장서인이 찍혀있다. 이것은 청풍 김씨 김석중(1655-?, 字는 祖揆)의 것이다. 이로 볼 때, 『옥찬』은 17세기 중후반에는 이미 간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태였다. 『옥해』의 수입 시기와 비슷한 점이 의미심장한데, 당시에 중국



<그림 6> 교토대본 『玉纂』의 장서인

본 유서를 복각해서 유통시키는 데 만족하지 않고 직접 유서를 편찬한 결과물이 『옥찬』이 아닐까. 교토대 부속도서관에 소장된 1책 영본에도 3과와 장서인이 찍혀있다. 첫 번째 장서인은 관독을 하지 못했으나, 나머지는 “李尙謙印”, “癡齋”(鼎形陽刻朱印)로, 김석중과 비슷한 연대 사람으로 慶尙右道兵馬節度使를 지낸 이상겸(1646-?, 字는 益之, 본관은 전주, 1669년 進士)의 장서인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옥해』는 총 21개의 분류항목²⁹⁾을 설정했다. 『옥해』는 국가의 典章制度와 時務策에 관한 내용을 중심으로 삼아, 天地人事物의 博學을 추구하는 일반 유서와는 차이가 있다. 비슷한 시기(1260-1269)에 편찬된 『事林廣記』와 비교해보면 그 차이가 분명하다. 『사림광기』는 53개 대분류항목³⁰⁾을 두어, 세계에 대한 지식을 폭넓게 수록했다. 『옥해』의 한정된 내용은 과거라는 특정한 목적에 따른 것으로, 과거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적은 내용, 예를 들어 『사림광기』의 佛敎·茶菓·仙境 등의 항목은 과감히 배제했다.

이러한 원칙은 조선의 책판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되, 조선의 특징적인 지점이 있다. 우선 여러 중국 유서들이 部의 대분류항목-類의 소분류항목-표제어 구조를 지닌 데 반해, 책판은 門(또는 部)의 단일 분류항목만을 두고, 곧바로 표제어를 나열해서 상대적으로 간략한 구조를 띠고 있다. 4종 책판의 분류항목은 다음과 같다.

27) 심경호(2012), 507-510.

28) 최환,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I),” 『중국어문학』, 41(2003. 6), 382.

29) 天文·律曆·地理·帝學·聖文·藝文·詔令·禮儀·車服·器用·郊祀·音樂·學校·選舉·官制·兵制·朝貢·宮室·食貨·兵捷·祥瑞.

30) 天象·曆候·節序·農桑·花品·菓實·竹木·人紀·人事·家禮·儀禮·帝系·紀年·歷代·聖賢·先賢·儒敎·幼學·文房·佛敎·道教·修真·官制·俸給·刑法·公理·貨寶·醫學·文籍·辭章·卜史·選擇·器用·音樂·文藝·武藝·音譜·算法·雜詠·伎術·閭粧·茶菓·酒麪·麵食·飲饌·禽獸·牧養·地輿·郡邑·方國·勝跡·仙境·拾遺.

<표 1> 4종 책괄의 분류항목

서명	분류항목
經書類抄	天道部, 地理部, 人倫部, 君道部, 后妃部, 卜筮部, 治化部, 臣道部, 用人部, 出處部, 賞刑部, 民生部, 農桑部, 貢賦部, 財貨部, 酒食部, 荒淫部, 音樂部, 祭祀部, 喪事部, 器用部, 宮室部, 軍旅部, 畜物部, 草木部, 異端部, 人事部, (經書類抄附) 性行部, 進修部, 聖賢部, 道學部, 稽古部
經史集說	天道門, 地道門, 祥瑞門, 災異門, 君位門, 君道門, 亂政門, 臣道門, 人倫門, 人品門, 吏部, 官爵門, 外職門, 戶部, 寶貨門, 禮部, 音樂門, 道學門, 經籍門, 宴飲門, 飲食門, 喪禮門, 兵部, 制閫門, 器械門, 刑部, 工部, 服用門, 器用門, 時事門, 人事門, 禽獸門, 花木門, 果實門
玉纂	天地門, 山水門, 花草木菜門, 鳥獸群虫門, 術藝門, 文藝門, 科制門, 節序門, 帝王經國立制門, 帝王家政門, 帝王立政門, 教化門, 百官門, 用人門, 進退仕止門, 禍福門, 學行門上, 學行門下, 治生門, 理財門, 財寶門, 宴享門, 酒食門, 兵制門, 兵技門, 戰守門, 任將門, 交隣事大門, 兵禍門, 法制門, 第宅門, 道路門, 工政門, 治容門, 器用門, 四野門, 記性門, 疾病門, 死生門, 婦人門, 禮樂門, 章服門, 仗儀門, 昏禮門, 喪葬門, 贈典門, 人事門, 人倫門, 師友門
性理說集錄	天道門, 人道門, 人倫門, 人粟門, 異端門, 性理門, 學術門, 知行門, 言語門(言行付)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4종 책괄은 天道門(天文門)으로 시작해서 地道, 人倫 등 三才의 일반적 유서 체계를 어느 정도 염두에 두었다. 4종 서적의 항목명이 유사한 점 역시 알 수 있다. 먼저 3종의 간행본 책괄의 경우 三才 분류 체계와 더불어, 君道門, 臣道門 등의 항목과 외교, 국방, 경제, 의례 등에 관한 항목을 두어 時務 및 典章制度를 중심 내용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류 항목은 조선시대 對策文의 출제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 조선시대에 文科는 총 804번 시행되었는데, 현재 策問(시험문제) 252개와 對策(답안) 284개를 확인할 수 있다. 출제된 주제는 인재, 정치, 경제 등 제 문제를 망라했다.³¹⁾ 위 분류 항목에서 君道·帝王經國立制·教化·亂政 등의 항목은 국왕에 의한 정치체제의 문제를, 民生·農桑·理財 등의 항목은 민생경제와 국가 재정의 문제를, 祭祀·喪事·禮樂 등은 국가와 사대부 개인의 예식 문제를 다루고 있다.

조선 책괄의 분류항목에는 다음 두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로, 책괄은 用人門(用人部)의 항목을 두어, 인재 등용에 관해 논한 내용을 수록했다. 이것은 중국 유서에 보이지 않는, 조선 책괄만의 분류이다. 앞서 중국의 『옥해』에도 ‘選舉’ 항목이 있다. 그러나 이는 인재 등용에 대한 일반론이 아니라, ‘周三物’, ‘周選士’, ‘殷周鄉塾貢士’부터 ‘漢舉孝廉四科’, ‘隋舉賢良科’ 등 고대로부터 송대에 이르는 인재 등용 제도의 史實을 정리한 것이다. 책괄에서 ‘用人’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룬 것은 이것이 과거시험의 주요 출제 주제였기 때문이다. 앞서 인용한 안소연(2018)의 통계에 의하면 현전하는 책문 중 11.6%인 44회 시험에서 인재에 관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향시와 성균관의 응제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그 빈도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과거에서 ‘用人’의

31) 안소연, “조선시대 經世觀의 변화 연구 - 策問·對策 분석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8), 19. 해당 논문에 첨부된 통계에 의하면, 인재(44개, 11.6%), 정치(83개, 21.8%), 경제(60개, 15.8%), 사회(77개, 20.3%), 문화(49개, 12.9%), 군사(26개, 6.8%), 외교(4개, 1.1%), 국방(17개, 4.5%), 기타 및 불명(20개, 5.2%)의 주제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았다.

문제가 다루어짐으로 인해 관련 유서가 편찬되었다. 동시에, 유서의 유통과 함께 '用人'이 주요 담론으로 확장되는 상호 상승효과가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860년에 崔漢綺(1803-1879)는 25권9책의 『人政』을 저술한 바 있다. 최한기는 이 책에서 인재 등용과 인사 행정의 문제를 測人門·教人門·選人門·用人門의 네 단계로 분류해서 논했다.



<그림 7> 『經書類抄』의 '用人部' 항목

둘째로, 조선 책괄은 道學·學行·經籍 등 성리학에 관한 별도의 항목을 두었다. 『경서유초』의 경우는 重刊 당시에 성리학 관련 항목을 대폭 보강해서, 性行部·進修部·聖賢部·道學部·稽古部의 분류항목을 신설했다. 이는 조선 과거 제도가 성리학을 유일한 宗旨로 삼은 것에서 연유한다. 끝이여 살펴볼 세부항목의 서술 내용에서도 이를 알 수 있다. 청대의 대표적 유서인 『淵鑑類函』의 경우 文學部의 하위 항목에 經典總載·書籍·文字·著述·文章·詩 등의 소분류항목을 두고 儒術 역시 文學部의 하위 항목으로 설정한 것과 대비된다. 『고금사문유취』 등 거질의 종합 유서에는 儒學部가 있기도 하나, 조선의 책괄은 비교적 적은 분량임에도 이러한 분류항목을 두었다. 또, 『연감유함』 등에는 釋教部·道部·靈異部·方術部와 같은 대분류항목을 두어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다루었지만, 책괄에는 관련 항목이 전혀 없거나, 異端 또는 術藝 항목에 일괄적으로 수록했다. 조선의 對策文에서 佛道의 문제는 이단의 배척과 관련해서만 논의되었기 때문이다.³²⁾ 조선의 사례와 비교해 보더라도, 이상의 두 가지 특징은 『유원총보』와 같이 중국의 유서를 모범으로 해서 보다 정제된 체계를 갖춘 유서에는 보이지 않는다.³³⁾

32) 심재권,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한국행정사학지』 37(2015. 12), 203.

33) 『유원총보』는 天道門·天時門·地道門·帝王門·官職門·吏部·戶部·禮部·兵部·刑部·人倫門·人道門·



<그림 8> 고려대 소장 『經史集說』 筆寫本(左)과 木活字本(右)의 學行門 ‘仁’ 항목

책괄의 분류항목을 통해, 국가의 시무, 전장제도 및 官學에 대한 지식을 정리하고자 한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 이는 표제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면의 한계 상 모든 책괄의 표제어를 소개할 수는 없다. 가장 폭넓은 내용을 수록하고 있는 『옥찬』만을 예로 든다. 『옥찬』의 분류항목과 표제어는 <부록>에 첨부했다.

『옥찬』은 통상적인 유서와 마찬가지로 天의 항목으로 시작한다. 다만 天地를 하나의 분류항목에 넣었는데, 이 항목은 대부분 우주의 법칙, 계절, 기상현상, 천문율력 등 天의 항목을 다루고 있다. 地는 오히려 소략해서, 자연으로서의 地는 다루지 않고, 國都, 外國 등 인문지리 항목을 넣었다. 오히려 일반 유서의 地 항목에 들어갈 표제어가 山水門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다. 여기에도 遊玩의 표제어가 있어, 자연과 인문을 엄밀히 구분하지는 않았다. 節序는 일반적으로 天道(天文)의 분류항목에 포함되거나, 天道 항목 다음 항목으로 설정되는데, 『옥찬』은 제4권 科制門의 다음에 따로 항목을 두었다. 이것은 절기를 역사 및 전장제도의 측면에서 다루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元日 표제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한단의 백성이 趙簡子에게 비둘기를 바쳤는데, 조간자가 이를 놓아주었다. 객이 이에 대해 질문하자, 조간자는 “정월 아침에는 방생을 해서 은혜로움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요.” 했다. (邯鄲民獻鳩簡子, 簡子放之, 客問之, 曰: “正朝放生, 示有恩也.”)

천지산수의 다음에는 조수초목 관련 항목을 두었는데, 후술할 것이나, 이 역시 자연학적·박물학

人事門·文學門·筆墨門·璽印門·珍寶門·布帛門·器用門·飲食門·冠服門·米穀門·草木門·鳥獸門·蟲魚門·附錄의 체제로 되어있다.

적 지식을 집적한 것은 아니다.

『옥찬』의 주요 내용은 제4권의 文藝門부터라 할 수 있다. 文藝門에는 經傳 및 제 문체에 관해 논했다. 四書와 더불어 『易』·『書』·『詩』·『春秋』·『周禮』를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五經에는 『주례』 대신에 『禮記』가 들어간다. 『옥찬』에 『주례』가 포함된 것은 고려 광종 14년(1119)부터 明經業의 시험에 『시』·『서』·『역』·『춘추』·『예기』·『주례』 6경의 經義를 출제한 전통³⁴⁾에서 비롯된 듯하다. 조선은 四書疑와 五經義를 두었는데, 오경의 중 禮義에서 『주례』를 직접적으로 시험했다는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으나, 『經國大典』이 『주례』의 六典體制를 모범으로 삼았다는 점에서³⁵⁾ 그 참고자료로서의 중요성은 분명했다. 文藝門 바로 다음 항목은 科制門으로, 『옥찬』의 체계에서 문예와 과거시험은 밀접한 연관을 지니고 있다.

이후의 항목은 국가 운영과 典章制度에 관한 것이다. 帝王經國立制門은 正統, 正朔 등 국가의 근간이 되는 문제부터 朝聘, 朝貢 등 외교의 문제, 帝王家政門은 제왕의 修身으로부터 后妃, 世子, 宗室 등 가정 제도와 운영에 관한 문제, 帝王立政門은 상고시대 聖王의 모범으로부터 군신의 도리,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정책을 논했다. 教化門은 제도의 문제를 넘어, 도덕과 문화로써 국가를 운영하는 정책을 논했다. 百官門과 用人門은 인사행정과 관리의 淸濁, 品階의 문제, 인재 등용의 문제를 다루었다. 인용된 서적과 그 내용은 중국의 것이지만, 御使, 監司, 朋黨 등 조선에 중요한 문제를 표제어로 설정했다.

進退仕止門, 禍福門, 學行門은 사대부 개인의 出處와 윤리에 관한 표제어를 위주로 하되, 學行門에는 君心, 君敬, 君學 등 군주의 윤리와 학문도 표제어로 두었다. 이 역시 대책문에 몇 차례 출제된 바 있는 주제이다.³⁶⁾ 治生門은 田居, 交市 등 개인과 사회의 경제 활동을, 理財門은 戶籍, 漕運, 賑窮, 租稅, 徭役 등 국가의 경제정책과 재정운동을 다루었다. 이 외에 御宴 등 국가의 연회로부터 향촌의 鄉飲酒禮에 이르는 주제를 다룬 宴享門과 酒食門, 국방과 외교를 다룬 兵制門, 交隣事大門, 법률을 다룬 法制門 등의 분류항목이 있다. 儀禮를 다룬 章服門, 仗義門, 婚禮門, 喪葬門의 분류항목에서도 帝王章服, 御寶印信, 帝王大婚, 帝王喪禮, 帝王碑銘 등의 표제어를 볼 수 있다. 이러한 국가의 儀禮는 왕도정치(王道)의 기본으로, 대책문에 빈번히 출제되었다.³⁷⁾ 정리하자면, 조선의 책괄은 과거시험에 출제될 것으로 예상되는(또한 이미 출제되었던) 典章制度 관련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집적해 두었다.

靑松沈氏 문중의 필사본 『성리설집록』은 간행본 책괄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성리설집록』은 典章制度에 관한 문제를 전혀 다루지 않았다. 대신 天道, 人倫, 性理, 知行 등의 분류항목 아래에 四書 및 그 註疏에 나오는 개념어들을 정리했다. 道與理之分 등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개념, 대립되

34) 이래중,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대동한문학』 39(2013. 12), 133.

35) 김인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성립과 주례 이념,” 『동방학』 38(2018. 2), 250.

36) 심재권(2015), 203.

37) 심재권(2015), 201.

는 개념 들을 함께 제시하면서 그 분별되는 지점을 분명히 해서 이해를 돕고 있다. 이는 분류항목(門)으로 類概念을 설정하고, 표제어의 種差를 밝히는 논리 구조이다. 그 표제어들은 다음과 같다.

<표 2> 『성리설집록』의 분류항목과 표제어

분류항목	표제어
天道門	天道, 天命, 天理, 太極, 理氣數, 陰陽五行, 天與人相與, 知天, 位育, 常變
人道門	視聽言動, 容貌辭氣, 威儀, 氣像, 器量
人倫門	父母, 事親, 孝悌, 孝友, 兄弟, 夫婦, 齊家, 師生, 教誨, 交道
人稟門	上智下愚, 人才高下, 論人, 觀人, 聖人, 過化, 存神, 生知, 安行, 學知, 利行, 困知, 勉行, 賢人, 君子, 聖賢之分, 聖賢愚不肖之分, 聖賢行事同異, 聖智之分, 成人, 善人, 大人, 小人, 君子小人之分
異端門	斥妖邪付, 斥仙之術, 隱怪, 鄉愿
性理門	道閑聖道付, 道與器之分, 道與物之分, 道與德相預, 道與理之分, 道與誠之分, 一貫, 道統, 祖述憲章, 聖人同道, 事異道同, 道不行, 聖賢自任, 德, 四德五常, 四端, 德與敬仁誠之分, 德與命之分, 德與學之分, 德與善之分, 德與行之分, 命, 性, 道性善, 人物之性, 氣質之性, 性命之分, 性與氣之分, 性與智之分, 性與情慾, 性與才之分, 性與情之分, 理, 理與性之分, 理與氣之分, 理與命之分, 心, 人心道心之分, 存亡出入之分, 身心內外之分, 心與仁之分, 心與性之分, 動心忍性, 心統乎理, 心統性情, 心合理氣, 心有虛實之分, 心有寂感之分, 無心有心病, 放溺, 不動心, 偏僻, 情, 情與意之分, 志, 意, 氣, 志氣, 血氣, 仁, 論仁, 安仁, 利仁, 求仁, 仁義之分, 仁禮之分, 仁智之分, 仁恕之分, 仁聖之分, 仁公之分, 仁孝之分, 仁德之分, 仁誠之分, 仁愛之分, 義, 義理之分, 義慾之分, 義敬之分, 義利之分, 禮, 禮義, 復禮, 智, 信, 忠信, 四端七情之分, 勇, 血氣之勇, 恕, 忠恕, 善, 善與性之分, 誠, 誠偽之分, 誠聖之分, 誠敬之分, 誠者誠之分, 誠身誠意之分, 敬, 主一, 恭敬, 敬怠, 敬恕
學術門	爲己學(爲人付), 好學, 復初, 不學, 暴棄, 中道廢, 躓等, 循序, 文學淺深
知行門	知言, 明善誠身, 擇善, 省察並存養, 存養省察之分, 思辨, 博約, 窮理, 精一, 求放心, 樂道(樂善付), 樂天, 三樂, 行(力行), 存心養性(事天付), 養心, 進修, 戒慎, 慎獨, 戒懼慎獨之分, 執守, 擴充, 自反, 克己復禮, 知行總論, 體用, 動靜, 同異, 本末, 終始, 先後, 精粗, 淺深, 經權
言語門 (言行付)	聖賢言語同異, 聖賢言語

책괄 간에도 정보 인용 수준의 層差가 존재했다. 앞서 상세히 살펴본 『옥찬』의 경우, 文科(大科)의 對策文 작성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므로 典章制度에 관한 고사를 폭넓게 다루었다. 반면 『성리설집록』은 매우 한정된 주제만을 다루었다. 『성리설집록』은 小科 生員試의 四書疑에 대비하기 위한 참고서였기 때문이다. 사서의는 경전 속의 키워드를 제시하고 이에 관련한 질문에 답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그 이해도를 시험했다.³⁸⁾ 그 질문은 다음과 같은 방식이었다.

묻는다. 『중용』에 “귀신의 덕이 성대하구나.”라고 했는데, 귀신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은 氣인가? 理인가? ‘만물을 낳으면서 빠뜨림이 없다’는 것은 造化로서의 귀신을 말한 것이고, ‘재계해서 깨끗이 하고 祭服을 갖춰 입을다’고 한 것은 祭祀에 있어서의 귀신을 말한 것이다. 조화로서의 귀신과 제사에 있어서의 귀신이 같은가? 다른가? 조화와 제사는 모두 귀신을 氣에 귀속시킨 것

38) 四書疑와 五經義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文體이되, 사서의가 사서 가운데 1종 또는 2종 이상에서 내용을 제시해서 전반적인 이해를 시험하는 데 반해 오경의는 오경 중 1종에서 제시함으로써 독립적 이해를 시험했다는 차이점이 있다(이래중(2013), 136-137.).

같지만 끝내 '誠은 가릴 수 없다'는 말로 끝맺었으니, 또한 귀신을 理에 귀속시키는 것 같음은 어째서인가? 中庸章句에서 귀신에 대해 풀이한 것은, 程子は 천지의 공효[功用]이자 조화의 자취라고 보았고, 張子は 二氣(陰陽) 본연의 기능[良能]이라고 보았고, 朱子は 陰의 靈이자 陽의 靈이라고 보았다. 功用이니 자취니 良能이니 靈이니 한 것은 또한 同異와 精粗를 말할 수 있는가? 그 설을 듣고자 한다.³⁹⁾

여기서는 『중용』 제16장에서 귀신에 대해 논한 구절과 그 註疏에 대해 논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소 책팔에서 鬼神 항목을 익숙히 공부한 舉子라면 유서에 발췌되어 있는 鬼神 논의를 인용해서 논지를 전개할 수 있다. 다만 『성리설집록』에는 鬼神의 항목이 없어, 이것으로만 공부했다면 科場에서 크게 당황했을 것이다.

후대로 갈수록 四書疑의 시험은 중복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는 鄉試에서 특히 심각했다. 또, 답안지 역시 비슷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이는 試題集, 科文選集의 유행으로, 출제자는 그 안에서 주제를 선정하고, 거자는 모범답안을 베끼고는 했기 때문이다.⁴⁰⁾ 조선 후기 활발히 편찬·유통된 책팔 또한 하나의 원인이었을 것이다.

만일 책팔을 본래 蘇軾이 정의했던 대로 '對策文을 위한 것'으로만 한정한다면, 『성리설집록』은 책팔에 포함되지 못한다. 그러나 小科·大科를 구분하기보다는 과거 참고서 전반을 책팔로 확장시켜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옥찬』에서 볼 수 있듯이, 대책문을 위한 책팔이라도 기본적으로 四書五經에 대한 항목과 學行, 性理 등 기본 사항을 담고 있다. 『성리설집록』은 책팔의 하위 범주에 들어가는, 보다 세부적인 목적성을 띤 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제3장에서 후술할 것이나, 『성리설집록』의 필사자는 학문적 수준이 높지는 않았다. 다양한 수준의 독자층에 대응하는 책팔이 제작·유통되었을 시사한다.

2.3 권위적 문헌의 集錄과 2차인용 상의 오류

책팔은 경전과 典章制度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과거 준비에 도움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여기에서 폭넓은 지식은 博物學적인 博學을 의미하지 않고, 어디까지나 '과거 준비'라는 구체적인 지향점이 있다.

상업적으로 간행된 책팔은 대체적으로 필사본 책팔보다 분량이 많고, 鳥獸草木에 관한 대분류항목을 별도로 두어 유서의 구색을 갖추었다. 반면 필사본 책팔류 유서에는 관련 내용이 없다.⁴¹⁾ 이는

39) 『京外題錄』 小科題, 式年監試覆試一所, 1777년 식년시(윤선영, “正祖代 四書疑 試題 小考,” 『태동고전연구』 37(2016. 12), 43.에서 원문 재인용, 일부 표점 수정).

“問. 中庸曰, ‘鬼神之爲德, 其盛矣乎.’ 鬼神者, 果何物歟? 是氣歟? 是理歟? 體物不遺, 以造化之鬼神言也, 齋明盛服, 以祭祀之鬼神言也. 造化之鬼神·祭祀之鬼神, 同歟? 異歟? 造化與祭祀, 皆似以鬼神屬乎氣, 而卒以誠之不可掩結之, 則又似以鬼神屬乎理者, 何歟? 章句之訓鬼神也, 程子則以爲天地之功用而造化之跡, 張子則以爲二氣之良能, 朱子則以爲陰之靈·陽之靈, 曰功用·曰跡·曰良能·曰靈者, 亦有同異精粗之可言歟? 願聞其說.”

40) 윤선영, “조선 후기 과거(科擧) 생원시(生員試) 문답의 한계점 고찰 - 사서의(四書疑) 과목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5(2019. 5), 424-432.

개인 또는 가문에서 필사본을 만들 당시 자료를 집록하는 데 상당한 수고가 들어갔으므로,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긴요한 주제만을 纂集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간행본 책판에 조수초목 항목이 있지만, 여기에 自然學적 지식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물론 이는 동아시아 유서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예문유취』 등의 주요 유서 뿐 아니라 『三才圖會』와 같은 박물학적 유서조차도 동식물의 자연학적 정보보다는 관련 史實이나 전고, 詩文을 주로 집록했다. 『本草綱目』과 같은 전문적 목적의 유서나 『物名攷』 등의 물명류 유서 등이 오히려 특수한 사례일 것이다. 그러나 책판은 조수초목의 字義나 특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아, 여타 유서보다 더욱 經義를 집록하는 데 집중했다. 세 간행본 책판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옥찬』은 비교적 수록 표제어도 많고 내용도 충실하나, 『경서유초』와 『경사집설』은 매우 소략하고 표제어도 적다.

(『經書類抄』 草木部 ‘草’) 庶草繁蕪.(範) 彼茁者葭.(騶虞) 葛之覃兮, 施于中谷, 維葉萋萋, 維葉莫莫.(葛覃) (후략)

(『經史集說』 花木門 ‘梅’) 有賁其實.(詩) 梅, 肇於炎帝之經, 著於說命之書, 召南之詩. ○以滋不以象也, 以實不以華也. ○楚之騷人, 飲芳而食菲, 佩芳馨而服葩藻, 遠取江籬·杜若, 而近捨梅, 抑梅之未遭歟. ○梁何遜, 詠早梅. (후략)

(『玉纂』 花草木菜門 ‘花’) 邵子詩: ‘賞花全易識花難, 善識花人獨倚欄. 雨露功中觀造化, 神仙品里定容顏.’ ○明道詩: 傍花隨柳過前川. 取其生意, 春融與已一也. ○邵詩(중략) ○又曰(중략) ○天寶中: 長安士女, 春時鬪花, 以千金市名花, 植於庭中, 爲探春之宴. ○宋朱勣: 民庶家, 一花一石, 稍堪玩者必致之, 民至破產, 有一物小異, 共指爲不祥, 惟恐芟夷之不速. ○宋太宗(중략) ○品題風花, 與堯舜三代而爲一, 優遊造物, 與顏瓢點瑟而同歸.⁴²⁾ ○潘岳爲河陽令, 種一縣花, 時人謂河陽滿縣花.⁴³⁾ (후략)

『경서유초』는 인용처를 축약해서 제시했다. 위의 ‘草’ 항목에서 ‘範’은 『尙書』 周書 「洪範」편, ‘騶虞’는 『詩經』 召南 「騶虞」편, ‘葛覃’은 『시경』 周南 「葛覃」편이다.

『경사집설』 ‘梅’ 항목의 ‘詩’는 『시경』 주남 「桃夭」편이다. 그 이후는 인용처를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梅, 肇於炎帝之經 … 抑梅之未遭歟.”는 송나라 楊萬里的 『誠齋集』 권80 「洮湖和梅詩序」에서 발췌했다. 한 편의 글에서 인용했음에도 권점○을 두어 각각 다른 글인 것처럼 표시했는데, 이는 『경사집설』의 편찬자가 이 인용문이 양만리의 글 1편에서 나온 것임을 모른 채, 원본을 확인하지 않고 양만리의 글을 발췌한 선집 또는 유서에서 잘못 인용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옥찬』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서적을 인용했다. 그러나 이 전부가 원전의 1차인용은 아니다. 『옥찬』

41) 예를 들어, 沈能淑(1782-1840) 후손가에 전하는 필사본 책판 『文時』의 경우, 天道門·地道門·君道門·臣道門·儒道門·天官門·地官門·春官門·夏官門·秋官門·冬官門·人事門을 두어, 조수초목 관련 항목을 생략했다.

42) 『朱子語類』 권100 「邵子之書」에서 주희가 소옹의 시구 ‘雪月風花未品題’를 평한 것을 다시 『古今源流至論』 권1에서 평하고, 이것을 변형, 발췌한 것으로 보인다. 『고금원류지론』은 조선 庚子字本 『新箋決科古今源流至論』이 있으나, 역시 원문의 변형 정도로 볼 때 기존 유서를 재인용했을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

43) 蘇軾의 「次韻孫巨源寄漣水李盛二著作並以見寄五絕」 중 한 구절에 대해 『集註分類東坡先生詩』에서 전고를 해설한 주석 “潘岳字安仁, 爲河陽令, 種桃李花, 人號曰: 河陽一縣花.”를 발췌한 것이다.

의 경우는 인용처를 인용문의 서두에 간략히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花 항목의 첫 번째 인용처인 '邵子詩'는 邵雍의 『獨賞牧丹』이다. 두 번째 '明道詩'는 표기와 달리 정호의 시 자체를 인용한 것이 아니라, 程顥의 『春日偶成』 중 한 구절을 『性理群書句解』 제4권 詩 『七言短句』에서 해설한 것을 재인용했다. '天寶中'은 『開元天寶遺事』 제3권을 인용한 것인데, 원 자료를 1차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를 인용한 『白孔六帖』 제3권의 『春』 항목을 재인용했을 듯하다. 바로 다음 인용문인 '宋朱勗'은 『宋史紀事本末』 제50권 『花石綱之役』을 발췌한 것이다. 그런데 『옥찬』의 '一花一石'은 원문의 '一石一木'을 잘못 인용했다. 다른 서적에서 『송사기사본말』을 재인용하면서, 『송사기사본말』의 원문을 참고해서 교감하지 않았다.

『경사집설』은 '春' 표제어 중 '纂要'를 인용한 부분에 "風曰柔風, 景曰韶景, 節曰芳節, 時曰嘉時."라고 적었는데 이것은 『事類賦』 권4의 '春' 항목에서 "梁元帝纂要曰: 春, 風曰柔風, 景曰韶景, 節曰芳節, 時曰嘉時."라고 梁元帝의 『纂要』를 인용한 부분을 재인용한 것이다. 양 원제의 『찬요』는 실전되어, 『初學記』, 『太平御覽』 등의 유서에 내용이 인용되어 散見할 뿐인데, 마치 원문을 인용한 것처럼 표기했다. 이러한 거짓 인용은 『경사집설』의 도처에 보인다.

(『太平御覽』 권20 春 중) 『唐書』曰: 景龍中, 中宗孝和帝以立春日宴別殿, 內出剪彩花, 令學士賦之. 又曰: 景龍四年正月八日立春, 上[命侍臣]自芳林門經苑東度入仗, [至望春宮迎春,] 內[出彩花樹, 人賜一枝.] 『荊楚歲時記』曰: 立春日, 悉[剪彩爲燕以戴之, 帖宜春之字.] 傳咸『燕賦』, 有其言矣. (傳咸『燕賦』云: 四氣代至, 敬迎其始. 彼應運而方臻, 乃設燕以迎止. 翬輕翼之歧歧, 若將飛而未起. 何夫人之功巧, 式儀形之有似. 銜青書以贊時, 著巨春之嘉祉.) 『周書時訓』曰: 立春之日, 東風不解凍, 號令不行. 蟄蟲不震, 陰氣奸陽. 魚不上冰, 甲冑私藏. 雨水之日, 獾不祭魚, 國多盜賊. 鴻雁不來, 遠人不服. 草木不萌動, 果瓜不熟. 『國語』曰: 農祥晨正. 唐固注曰: 農祥, 房星也. 晨正, 謂晨見南方. 謂立春之日. 『齊人月令』曰: 凡[立春日食生菜,] 不可過多, [取迎新之意]而已, 及進漿粥, 以導和氣.

(『經史集說』 天道門 '立春' 항목 중) 令侍臣, 至望春宮迎春, 出綵花樹, 人賜一枝.(唐風俗記) 土牛土象, 以造寒氣, 且以順時應□○賜金銀綵勝.(唐古事) 剪綵爲燕戴之, 帖宜春之乎.(荊楚歲時記) 立春之日食生菜, 取迎新之意.(齊月令)

唐風俗記, 唐古事, 荊楚歲時記, 齊月令 등의 서적을 인용했지만, 실제로는 『태평어람』의 내용 일부를 절록한 것이다. 『태평어람』은 『형초세시기』의 원문을 "봄이 딱 알맞다"라는 글자를 帖으로 만들었다.(帖宜春之字)"라고 인용했는데, 『경사집설』은 이를 "帖宜春之乎"로 잘못 인용했다. 이는 글자가 비슷해서 생긴 착오로, 문장의 의미가 성립되지 않는다. 『경사집설』의 편찬자가 『태평어람』을 베끼던 중 착오를 일으켰거나, 조악하게 편집된 『태평어람』 인용 유서를 재인용한 과정에서 원문을 확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경사집설』은 『태평어람』 일부를 순서대로 전제하면서도 『태평어람』에 없는 "土牛土象..."의 내용이 삽입되어 있다는 점에서, 『태평어람』과 『경사집설』의 중간 단계 유서가 별도로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상에서 간략하게 검토했듯이, 책팔에는 다수의 인용 오류가 있다. 이는 원전을 정밀히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기존의 유서를 재인용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하면서, 책팔의 인용 서적

에 관해 간단히 논한다.

먼저 『경서유초』의 경우, 축약된 서명이 명시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총 16종⁴⁴⁾의 인용 서적을 분석한 연구가 있다.⁴⁵⁾ 다른 책판의 경우, 서명을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주요 경서 외의 서적을 다수 인용했으므로 그 전체 인용 서명을 밝히기는 어렵다. 이 작업은 후속연구에서 수행하도록 하고, 본고에서는 책판의 가장 첫 항목이자 성리학적 세계관의 핵심인 ‘太極’ 항목을 통해 개략적인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경사집설』 天道門 ‘天太極理氣付’ 항목) 大哉乾元, 萬物資始. ○雲行雨施, 品物流亨.(乾象: 『주역』 『象傳』) 天地之道, 貞觀者也, 立天之道, 曰陰與陽.(繫: 『주역』 『繫辭傳』) 天行健. ○天地相遇, 品物咸章. ○乾至健, 坤至順. ○闔戶謂之坤, 闔戶謂之健.(易: 『주역』) 天有顯道, 厥類孔彰. ○天地, 萬物父母.(書: 『상서』) 謂天蓋高, 不敢不局. ○胡然而天也. ○昊天孔昭. ○明明在上, 照臨下土. ○上天之載, 無聲無臭. ○維天之命, 於穆不已.(詩: 『시경』) 天何言哉? 四時行焉, 百物生焉. ○夫子言天道不可得而聞. ○天不可階而升.(論: 『논어』) ○日月星辰繫焉, 萬物覆焉. ○鳶飛魚躍.(庸: 『중용』) 天道敏生.(家: 『孔子家語』) 天有四時, 風雨霜露, 無非教也. ○著不息者天也. ○高明所以覆物. ○大時不齊.(註) 元化不齊萬物.(禮: 『禮記』) 天地中有太極, 萬物中有太極, 人人有一太極, 物物有一太極. ○太極, 理之根源. ○理者生物之本也, 氣者生物之具也.(朱子: 주희의 『회암집』) (후략)

『경사집설』 역시 축약된 서명을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서적에서 여러 구절을 인용할 경우 권점으로 구분하고, 인용이 끝나는 지점에 陰刻으로 서명을 표기했다. 이어서 다른 서적에서 나온 인용문을 실었다.⁴⁶⁾

『경사집설』에는 ‘先儒說’이라는 인용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기존의 유서를 재인용하는 과정에 그 출처를 알 수 없게 되었으나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 삭제할 수 없는 것을 함께 게재한 것으로 보인다. 경전 외에 주희, 주돈이, 진덕수의 글이 인용되었다. 다른 표제어를 보면 程子(정이, 정호), 邵子(소옹), 張子(장횡거) 등도 보여, 濂洛關閩의 주요 理學家들이 인용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인용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들은 공통적으로 『性理大全書』에 수록되어 있는 문장이다. ‘태극’ 항목에서 주희, 진덕수, 황간의 설은 『성리대전서』 제26권 『理氣』 總論을 전재했다. 이 과정에서 원문의 白話體를 수정하고 축약하기도 했다.

理也者, 形而上之道也, 生物之本也, 氣也者, 形而下之器也, 生物之具也. (『晦庵集』 권58, 『答黃道夫』; 『性理大全書』 권26 『理氣』 總論)

理者生物之本也, 氣者生物之具也. (『경사집설』)

44) 『周易』, 『尙書』, 『詩經』, 『禮記』, 『儀禮』, 『論語』, 『孟子』, 『中庸』, 『大學』, 『小學』, 『孝經』, 『國語』, 『春秋左傳』, 『爾雅』, 『說苑』, 『家語』.

45) 이정호, “『經書類抄』의 引用方式에 관한 小考,” 『서지학연구』 54(2013. 6), 381-408.

46) 이하 생략한 부분의 인용 목록은 다음과 같다. 濂溪太極說(周敦頤의 『太極圖說』), 西山(眞德秀의 『西山文集』), 勉齋(黃幹의 『勉齋集』), 董(董仲舒의 『離合根』), 先儒說(출처 불명의 설들), 史(『淵鑑類函』에 인용된 사적 발췌), 王元之紀(『연감유함』에 인용된 王禹偁(王元之)의 『待漏院記』), 韓(韓愈의 『原道』), 柳天說(柳宗元の 『天說』), 班(班固의 『漢書』), 事文(『古今事文類聚』), 註, 楊子太玄(揚雄의 『太玄經』), 淮南(『淮南子』), 老(『노자』), 莊(『장자』), 管(『관자』), 賈(賈誼의 『鵬鳥賦』), 博(『博物志』), 范(미상), 新(『儒子新論』), 騷(『楚辭』), 選(『文選』).

韓元震(1682-1751)의 『對農巖集中理氣問』(『南塘集』 권29)과 金正默(1739-1799)의 『性說辨』(『過齋遺稿』 권7)에는 『경사집설』의 위 문장과 동일하게 수정된 주희의 설이 인용되어 있는데, 『회암집』이나 『성리대전서』를 직접 열람하지 않고 편의에 따라 『경사집설』 등의 책판을 재인용한 듯하다.

수많은 서적을 갖추고 이를 1차인용하는 것은 책판의 상업적 편찬자들에게는 매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들은 기존의 유서와 『성리대전서』 등, 관련 주제를 미리 집성한 서적을 재인용했다. 책판은 명청대의 변화를 포함한 폭넓은 학설을 수록하지 않고, 官學인 성리학의 권위적 언설을 정리함으로써 과거 시험에 대응하도록 했다. 성리학적 정보 집적 양상은 조선에서 간행된 편찬자 미상의 유서 『性理諭林』이 명나라 萬曆 43년(1615)에 徐元太(1536-?)가 편찬한 『諭林』⁴⁷⁾을 모방했으며 주희를 중심으로 한 성리학자들의 註疏만을 발췌한 점과 유사하다. 『성리유림』은 제목에 '성리'를 명시해서 이러한 『유림』과의 차이점을 분명히 했다.⁴⁸⁾ 또한 책판은 중국의 경전과 문헌만을 집적하고, 조선의 문헌과 史實을 수록하지는 않았다. 장서각 소장 필사본 『廷考』는 영조 이후에 저술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조선 태조부터 영조까지의 사실을 간략하게 정리했다. 이 서적은 책판과 비슷하게 전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22개 분류항목⁴⁹⁾을 두었다. 책판을 보완하는 시도였던 듯하나, 미완으로 끝났다.

책판은 '원문을 집록한다'는 유서의 원칙에 따라 과거시험에 긴요한 경전 및 성리서를 집록하되, 편찬자 자신의 의견을 담은 按說을 첨부하거나 校勘을 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정보를 집적하고 분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학설과 고증을 첨부한 『星湖僿說』, 『五洲衍文長箋散稿』, 『瑣說類纂』 등의 '類說'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文彙』는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유서'로 분류되어 있고, 그 분류항목 및 표제어, 서술 체제가 책판과 같다. 기존 연구에서 이 서적이 과거시험용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⁵⁰⁾ 이하와 같이 『문휘』는 『성리대전서』, 『고금사문유취』 등의 주요 서적을 인용해서 표제어를 설명하고 있다.

(『문휘』 天道門 '太極' 표제어) 山陽度氏曰: "太極之妙, 流行於天地之間者...於是乎流行也." (『성리대전서』 권1 『太極圖附錄』 總論) ○無極二字, 始見於老子. (『고금사문유취』 前集 권1 陸子靜(육구연) 『與朱元晦(주희)書』) ○朱子曰: "那箇滿山...無非是這太極." (『주자어류』 권116 『訓門人』) ○朱

47) 『유림』은 道·佛에 이르는 經史子集 4백여 종 서적을 인용했다. "自經史子集, 以及道佛諸書四百餘種, 凡語涉比辭者, 無論聖賢與流略之柏華, 目所嘗見, 必手錄焉." (徐元太, 『諭林自敘』, 『諭林』) 총 10門과 하위항목 약 580여 類가 있다. "是書以經史及諸子集中所載古人說諭之詞, 廣徵博採, 彙爲一編, 分立十門, 每門又各分子目, 凡五百八十餘類." (紀昀 등, 『欽定四庫全書 子部十一 類書類 『諭林』 提要』)

48) 『성리유림』 역시 참고서로서 광범위하게 유통된 유서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책은 『유림』과 마찬가지로 표제어의 訓義 또는 표제어가 인용된 원문을 수록하는 대신에 표제어를 비유한 문장을 집록했으므로, 일반 유서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또, 天文類·地理類·人事類·山類·水類·火類·草木類·禽獸類·金玉類·身體類·病藥類·衣服類·飲食類·器物類·屋宅類·耕種類·戰陣類의 분류항목을 두어, 試題를 직접적으로 대비하고 있지는 않다. 이를 근거로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했다.

49) 天道門·人倫門·君道門·臣道門·用人門·納諫門·學問門·經籍門·術藝門·民生門·農桑門·賦役門·財寶門·宮室門·器用機械門·儀禮門·褒贈門·征伐門·刑獄門·酒食門·鳥獸門·花卉門.

50) 김영선(2003), 89.

子答陸九韶曰：“不言無極則太極同於一物…不能爲萬化之根。”(『회암집』 권36 등, 『無極辯』) (중략)

그런데 『문휘』는 표제어 해설에 이어 改行하고 편찬자의 按說을 서술해서, 유서가 아닌 유설이다. 모든 항목에서 기존 문헌의 내용을 인용해서 논의를 연 뒤, 조선의 학술에 대한 작자의 적극적인 평설을 남겼다.

陸象山 등의 여러 공들은 집 위에 집을 지으며 험뜯고 평론하기를 그치지 않았으니, 유독 無極은 형상이 [없고] 太極은 理를 갖추고 있으며,⁵¹⁾ 無極을 말하지 않으면 太極이 하나의 物과 마찬가지로 귀결되어버려 萬化의 근본이 될 수 없고 太極을 말하지 않으면 無極이 空寂으로 흘러버려 萬化의 근본이 될 수 없음을 알지 못한 것이다.⁵²⁾ 伏羲가 『易』을 그리고 文王이 『易』을 연역함에 太極을 말한 적이 없으나 孔子가 이를 말했고, 周公이 『易』에 彖傳을 달고 孔子가 『易』을 찬술함에 無極을 말한 적이 없으나 濂溪가 이를 말했다. 전대의 성인과 후대의 현인이 헤아린 바가 같다.⁵³⁾ (중략)

우리 동방의 眞儒들은 학술을 낸 것이 비록 드무나, 다른 갈림길의 사이에 學理가 정밀하지 못해서 高遠한 것에 힘쓰는 경우가 있다. 孫(孫叔暉)·曹(曹漢輔) 두 공은 無極 2자가 虛無寂滅로 귀결된다고 생각했지만, 다행히도 晦齋 李선생(李彥迪)이 반복해서 개진하고 정성스럽게 이끌어주며, 道의 본체를 천명하고 이단의 설을 공과함에 힘입게 되었다. 선생의 말에 ‘유가의 虛는 비었지만 존재하고 불가의 虛는 비어서 없으며, 유가의 寂은 고요하지만 감응하고 불가의 寂은 고요해서 소멸한다. 老子가 有無를 말한 것은 有無를 둘로 본 것이고 周子が 有無를 말한 것은 有無를 하나로 본 것이다.’⁵⁴⁾라 한 것은 명백하고 통쾌해서 남은 찌꺼기가 없어, 말씀을 세우고 설을 드러낸 것이 이전 사람들이 드러내지 못한 부분을 확충한 바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학자들이 모두 儒·釋의 향배를 알아 無極과 太極의 갈래를 둘로 보지 않으니, 선생의 공이 온당하지 않은가?⁵⁵⁾

『문휘』의 저자는 太極無極에 관한 주희의 설을 인용하면서 육구연의 설을 비판했다. 이어서, 조선 중기 손순돈·조한보와 이언적 간의 無極 논쟁을 인용하며 이언적의 설을 존숭했다. 책팔이 문헌을 집적하고 체계화함으로써 지식의 기저를 형성하고, 『문휘』는 그 체재를 받아들여 자신의 학설을 분류해서 제시했다. 이는 지식 세계의 성립과 발전의 일면을 보여준다 하겠다.

51) 이 부분은 『주자어류』 권67의 『論後世易象』의 “有太極是有此理，無極是無形.”의 ‘無形’을 ‘形’으로 잘못 인용한 것이다.

52) 『無極辯』에서 주희가 無極을 부정한 육구연·육구소 형제의 설을 반박한 말을 인용했다.

53) 『晦庵集』 권36의 『答六子靜』에서 주희가 육구연에게 변론한 내용 중 하나이다.

54) 이언적이 『晦齋集』 권5 『答忘機堂第二書』에서 胡炳文과 주희의 설을 인용해서 孫·曹에게 無極과 虛無寂滅의 차이점을 밝힌 내용 중 일부이다.

55) 『文集』 天道門 ‘太極’ 표제어.
“陸象山諸公，以屋上架屋，譏評不已，殊不知無極是形，太極是有理，不言無極，則太極同於一物，而不足爲萬化之根，不言太極，則無極淪於空寂，而不能爲萬化之根。伏羲畫易，文王演易，未嘗言太極，而孔子言之，周公彖易，孔子贊易，未嘗言無極，而濂溪言之，前聖後賢，其揆一也。(중략) 我東方眞儒輩，出學術雖鮮，他歧而問，有學理不精，驚於高遠。孫曹兩公，乃以無極二字歸之虛無寂滅，幸賴晦齋李先生，反覆開陳，諄切提論，闡明道體，攻破異說，其曰：‘此之虛，虛而有，彼之虛，虛而無，此之寂，寂而感，彼之寂，寂而減。老子之言有無，以有無爲二，周子之言有無，以有無爲一者。’明白痛快，無復餘蘊，立言著說，蓋有擴前人所未發者。至今偏方學者，皆知儒釋之向背，而未嘗以無極太極歧以二之，先生之功，不亦躋歟?”

3. 策括의 제작 및 지식의 유통 정황

본 장에서는 고려대 도서관 소장 刊行本 책판 3종과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槐山 青松沈氏 沈壽賢 後孫家 古文書' 소장 筆寫本 1종을 분석함으로써 책판의 제작과 유통에 대해 간략히 논한다. 조선에서는 刊行本 책판이 크게 유행해서 현재 대부분의 주요 도서관과 기관에 관련 서적들이 소장되어 있다. 한편 筆寫本 책판의 경우, 서적의 '물리적 유통'이 아닌 가문 및 학파 내 지식의 전파를 통한 간접적 유통 양상을 보여주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공통적으로, 책판은 저자가 명기되어 있지 않고, 편찬 의도를 밝히는 서발문이 없다. 이는 책판이 필요성(상업적 출판을 위한 간행본 제작, 자신 또는 가문 구성원의 학습을 위한 필사본 제작)에 의해 편찬되었으나, 편찬자가 자신의 저술로서 자랑스럽게 세상에 내보인 물건은 아니었음을 시사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책판은 전대의 유서와 전집류를 전제한 과정에 상당한 오류를 범하기도 했다. 이는 『攷事撮要』, 『類苑叢寶』, 『閨閣叢書』 등, 저자의 이름을 내걸고 간행된 정교하고 체계적인 유서와는 달리, 높은 수준을 목표로 하기 보다는 제작 및 열람의 편의성을 목표로 했기 때문인 듯하다.

먼저 고려대 소장 간행본을 살펴보고자 하겠다. 본고에서는 『경서유초』, 『경사집설』, 『옥찬』의 3종 刊行本을 소개했다. 이들 서적은 모두 간행지와 간행 주체를 알 수 없는 다양한 板種이 존재한다. 이들 판본을 대조해서 그 선후관계나 간행 상황을 밝히는 작업은 무의미하다. 정밀성이 부족해서 오류를 내포하고 있는 책판의 특성상, 판본 간의 글자 出入이 있다 하더라도, 판본a를 저본으로 교정을 해서 판본b를 제작한 것인지, 오히려 판본b를 재간행하는 과정에 판본a의 오류가 생긴 것인지 판단할 근거가 전혀 없다. 또, 활자본과 목판본의 형태가 상이해서, 일반적인 판찬 활자본-목판본과 같은 飜刻이 이루어진 정황도 보이지 않는다. 필요에 의해 그때그때 인쇄된 이들 간행본 책판의 이본 계통을 서지적으로 분석한다고 해서, 문화사적으로 의미 있는 결론을 도출해낼 가능성도 없다. 다만 다양한 판종으로 미루어보아, 그 광범위한 유통 정황은 분명히 알 수 있다.

『경서유초』의 경우, 『鏤板考』에 기록되어 있듯이 목판본이 존재한다. 한국고전적종합목록시스템에 의하면 현재 국중, 국회도서관, 국학진흥원, 한중연, 규장각, 전남대, 전북대, 국민대, 계명대 등 여러 기관에서 목판본을 소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국중, 고려대, 경기대 등에 목활자본, 규장각에 필사본과 陶活字本 등이 보인다. 江華學派의 李令翊이 6촌동생 李忠翊에게 『경서유초』의 유용함을 말한 내용으로 볼 때, 『경서유초』는 목판 인쇄되어 乙亥獄事 이후 과거 진출을 단념해야 했던 강화학과 지식인들에게까지 널리 유통되었던 듯하다.

『경사집설』 역시 다양한 기관에 소장되어 있다. 목판본이 국중, 영남대, 전남대, 성균관대 등에 소장되어 있고, 이 외에 목활자본이 국중, 하버드 앤칭도서관, 버클리대, 고려대,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도활자본이 도쿄대 오구라문고, 한중연, 규장각, 서울대, 연세대, 성암고서박물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충남대 도서관에 권5-6 1책 零本의 금속활자본이 소장되어 있는 것으로 게재되어 있으나, 이는 검증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사집설』은 匏活字本으로 알려진 판본도 다수 있어, 국중, 규장각,

컬럼비아대, 고려대, 연세대, 서울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⁵⁶⁾ 『경사집설』의 경우, 보다 크기가 크고 정교한 목판본 계열과 크기가 작고 字形이 질박한 활자본 계열이 존재한다.

經史集說 零本5册

木板本：四周單邊 半郭 22.0 x 14.5 cm, 有界, 16行23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29.0 x 19.0 cm
만송 E1 A6D 1-5

經史集說 15卷7册

木活字本：四周雙邊 半郭 19.4 x 12.3 cm, 有界, 19行23字, 上下內向2葉花紋魚尾；23.2 x 15.5 cm
만송 E1 A6B 1-7



<그림 9> 고려대 소장 木板本(左) 『經史集說』과 木活字本 『經史集說』

목판본과 목활자본은 내용이 완전히 동일해서 글자의 출입을 분석해서 선후를 판정할 수는 없다. 다만 목판본의 크기가 큰 점으로 볼 때, 활자본을 복각해서 목판에 판각했을 가능성은 적고, 목판본이 먼저 간행된 후 지역의 수요에 따라 활자로 소량을 인쇄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 고려대 소장 목판본(만송 E1 A6C 5-8)에는 중간에 빠진 부분을 補寫하거나 목판으로 補刻한 부분이 있는데, 목판 보각의 경우 전혀 다른 字形이므로, 목판 간행 역시 여러 차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上下內向2葉花紋魚尾와 16行23字의 판형은 동일하다. 목활자본 『경사집설』은 19行23字로 한 면에 더욱

56) 기존 연구에 의하면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書物同好會報』 제10호에 수록된 『支那及び朝鮮の古活字に就いて』에서 『경사집설』을 土活字本으로 감정했다고 한다(박문열, “韓國의 土活字印刷術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39(2008. 6), 11.). 그런데 필자가 소유한 『書物同好會報』 復刻板에는 아유카이의 글이 별책자 제1권에 수록되어 있고 『경사집설』을 언급한 부분도 보이지 않아 관련 내용은 확인할 수 없었다.

많은 내용을 수록해서 보관 및 휴대에 유리한 점이 있다.



<그림 10> 고려대 소장 木板本 『經史集說』 제12권의 卷首(左)와 동일 책 제13권의 상이한 목판으로 補刻한 부분(右)



<그림 11> 동일 木板本 『經史集說』의 補寫된 면

『옥찬』의 경우 활자본이 중심으로, 목판본은 국학진흥원과 경상대학교 두 곳에 소장되어 있다. 이 외에 목활자본이 하버드 엔칭도서관, 일본 동양문고, 나카노시마 부립도서관, 한중연, 경기대, 충남대 등에 소장되어 있다. 또, 도활자본이 컬럼비아대, 국회도서관, 성암고서박물관, 규장각, 한중연, 계명대에, 포활자본이 국중, 연세대에 소장되어 있다. 『옥찬』의 도활자본에 대해서는 마에마

교사쿠(前間恭作)가 고증한 바 있다.⁵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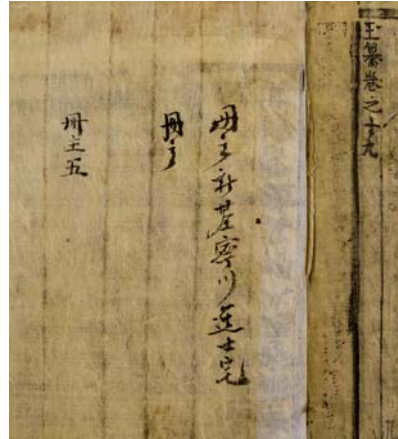
다양한 판종이 다수 현전하는 점에서, 당대에 해당 서적들이 널리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도화자 또는 포활자로 추정되는 판본도 다수 있다. 도화자의 경우, 출토된 실물이 존재하며⁵⁸⁾ 영조 5년(1729) 『승정원일기』 기사에 관련 언급이 보이며,⁵⁹⁾ 실제 도화자 책판류 유서가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고 윤병태 선생의 『한국고서종합목록』 1968년판에도 『經史集說』 도화자본이 기록되어 있다. 포활자의 경우, 아유카이 후사노신(鮎貝房之進)이 활자 실물을 입수하지 못했음을 인정했고,⁶⁰⁾ 실물이 전하지 않아 판단하기 어렵다. 포활자본이 단순히 조악한 목활자본을 오인한 것에 지나지 않는지,⁶¹⁾ 여부는 본고에서 판단할 수 없는 문제로 보인다. 고려대 도서관에는 『경사집설』의 포활자본(대학원 E1 A6 1·2·3·5)과 목활자본(만송 E1 A6B 1-7)이 소장되어 있다. 그런데 두 판본을 나란히 놓고 비교해보면, 활자와 광곽이 완전히 일치하는 동일 판본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 고려대 소장 匏活字本(左) 『經史集說』과 木活字本(右) 『經史集說』 대조

- 57) “前間恭作, 『朝鮮の板本』(松浦書店, 1937), 164.” 박문열(2008), 12.에서 재인용.
 58)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探求堂, 1981), 348-351.” 박문열(2008), 14.에서 재인용.
 59) 박문열(2008), 15-19.
 60) 陶活と匏活であります。陶活は活字を實見いたしませんが確證のある印本は下に寫眞を掲げあります。(중략. 『三略直解』.) 此の匏字本(『論語集註大全』을 말함.)의時代等一切不明であります。(중략) 匏活字は隨分探しましたけれども、どうもその實物は未だ手に入りません。(鮎貝房之進, 『支那及び朝鮮の古活字に就いて』, 『書物同好會冊子』 제1호, 昭和 12년(1937) 7월 3일 제3회 書物同好會: 387-388.)
 61) 김두중, 『韓國古印刷技術史』(探求堂, 1981), 350.; 안준근, “匏活字 存否에 대하여,” 『서지학보』 3(1990), 87.에서 재인용.

간행본 책갈들은 도활자 또는 포활자로 볼 수 있을 만큼 질박하고 실용적인 형태로 인쇄되었다. 고활자로는 한 번에 많은 부수를 인쇄할 수 없음을 고려하자면, 이들 서적은 향촌에서 수요가 발생할 때마다 수차례 방각본의 형태로 인쇄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고려대 소장 活字本(활자 종류 미상, 목활자 추정) 『옥찬』의 마지막 권에는 원 소유주의 墨書가 있다. “冊主新基寧川進士宅”으로, 寧川, 즉 충청남도 천안의 進士가 이 책의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본고에서 소개한 3종의 간행본은 대체로 20x15cm 가량의 소형 서적으로 제작되어 휴대와 열람의 편의성을 극대화했으며, 활자 인쇄되어 지방에 유통되기도 했다.



<그림 13> 고려대 소장 活字本 『玉纂』의 마지막 권 표지 이면의 墨書

한편, 서울역사박물관 소장 『성리설집록』은 필사본 책갈이 필요에 의해 가문 또는 학과 내에서 이용된 양상을 잘 보여준다. 물리적인 형태로 서적 자체가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가문·학과 내의 어른(또는 선배)이 집록한 원본을 베껴 필사본을 만드는 간접적 방식으로 그 지식·정보가 유통되었다. 역박본 『성리설집록』의 필사자는 『성리대전서』 등의 경학 서적을 직접 참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원본 책갈을 베끼는 과정에서 다수의 오류를 범했다. 아래의 표는 일부 표제어에서 『성리설집록』과 인용 원문 간의 차이점을 대조한 것이다.

<표 3> 『性理說集錄』과 인용 원문 비교대조

『성리설집록』	인용 출처
(天道) 董子曰, (ㄱ)‘善言天者, 必有[德]於人, 天道無形而難知, 人事有跡而易見.’ ○ 吳臨川理一箴曰, (ㄴ)‘[倉倉崇]高, 包含無際, [具]體至大, [能]特形只形氣之凝. 理實主是, 無聲無臭, 於穆不已. 天之爲天, 斯其爲至. 分而言之, 名則有異, 乾其性情, 天其形體, 妙用[神化], 主宰曰帝, 以其功用曰神, 曰鬼, 專而言之曰理而已.’	(『四書纂箋』 7권 離婁章句下 『凡判十河章』의 주석) 董仲舒策曰, (ㄱ)‘蓋聞善言天者, 必有[徵]於人, 天道無形而難知, 人事有迹而易見.’ (『性理大全書』 70권 『理一箴』) 或問于天, 予對曰, “理陰陽五行, 化生萬類, 其用至神, 然特氣爾, 必先有理而後有氣, (ㄴ)‘蒼蒼蓋]高, 包含無際, [其]體至大, [然]特形只形氣之凝. 理實主是, 無聲無臭, 於穆不已. 天之爲天, 斯其爲至. 分而言之, 名則有異, 乾其性情, 天其形體, 妙用[曰神], 主宰曰帝, 以其功用曰神, 曰鬼, 專而言之曰理而已.”
(師生) (ㄱ)記曰, ‘三王[五]代, 惟其師.’ ○ 心經楊龜山曰, (ㄴ)“以聖人爲師, 猶學射而立的, 的立於彼, 然後[夫可觀之]而求中. ○ (후략)	(『禮記註疏』 36권) (ㄱ)記曰, ‘三王[四]代, 惟其師.’ 其此之謂乎! (『尚書精義』 1권) 高氏曰, “學記, (ㄱ)‘三王[四]代, 惟其師.’” (『心經附註』 『聖可學章』) (ㄴ)以聖人爲師, 猶學射而立的, 然的立於彼, 然後[射者可視之]而求中.
(求仁) 朱子曰, 求仁者, 如上嶺, [高峻不得上], 心心念念只在要過這處, 更不思[是]別處去, [既得過這難處, 而又四是得其處], 這便是求獲.	(『朱子語類』 32권 『知者樂水章』) 曰, “說得是. 先難是心只在這裏, 更不做別處去. 如上嶺, [高峻處不能得上], 心心念念只在要過這處, 更不思[量]別處去, [過這難處未得, 便又思量到某處], 這便是求獲.”
(求放心) 朱子曰, (ㄱ)雞犬[之]放, [未有可求者], 惟是心纔求, 則便在, 未有求而不可得. (ㄴ)知其爲放而求之, 則不放矣. ○ 張南軒, (ㄷ)放之則人心之危無有極也. 知其放而求之, 則道心之微, 豈外是哉? 故貴於精一而已. ○ (후략)	(『朱子語類』 59권 『仁人心也章』) (ㄱ)雞犬放, [則有未必可求者], 惟是心纔求, 則便在, 未有求而不可得者. (『朱子語類』 59권 『仁人心也章』) 只消說(ㄴ)知其爲放而求之, 則不放矣. (張栻, 『癸巳孟子說』 6권) (ㄷ)放之則人心之危無有極也, 知其放而求之, 則道心之微, 豈外是哉? 故貴於精一[之]而已.

표 첫 번째 칸 ‘天道’ 항목의 (ㄴ) 부분은 『성리대전서』를 전재했다. 여기에서 『성리대전서』의 “그러나 특히 形이라는 것은 形氣가 응축된 것일 뿐이다(然特形只形氣之凝.)”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이를 “能特形只形氣之凝.”으로 적었다. 이는 문법이 성립하지 않는다. 초서에서 ‘然’과 ‘能’은 형태가 유사해서, 오른쪽의 획이 꼬인 획수에 의해 구분된다. 『성리설집록』의 필사자는 초서(즉, 자유로운 필기체)를 혼용한 원본 필사본 『성리설집록』을 필사하면서, 그 문장의 의미를 파악하지도 『성리대전서』를 놓고 교감하지도 못한 채 무비판적으로 옮기던 중 착오를 일으켰다. 『성리설집록』에는 다수의 필사 오류가 보이는데, ‘天道’ 표제어의 “徵於人”을 “德於人”으로, “其體至大”를 “具體至大”로 오인했고, ‘求仁’ 표제어의 “思量”을 “思是”로 오인했다. 모두 유사한 글자를 잘못 써서 의미가 통하지 않는다.

‘求放心’에서 『주자어류』의 “닭과 개를 놓치면 꼭 다시 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雞犬放, 則‘有未必’可求者,)”을 “닭과 개를 놓치면 다시 구할 수 없지만(鷄犬之放, ‘未有’可求者,)”으로 필사해서 ‘닭과 개는 구하려고 해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나, 마음[心]만큼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 구하고자 마음먹으면 반드시 구할 수 있다.’는 주희의 뉘앙스가 완전히 사라졌다.

『성리설집록』은 小科 生員試의 四書疑를 준비하기 위한 책판이다. 『성리설집록』의 필사자는 아직 대과에 응시할 수준에 이르지 못한 초학자였을 것이다. 『성리설집록』에는 표제어만 기록되어 있고 내용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데, 필사자는 항목 뒤에 추후 저술을 위한 공간을 두지 않고 바로 다음 항목을 필사했다. 필요에 의해 어른 또는 선배가 제작한 책판을 베꼈지만, 이를 교정하거나 증보할 능력은 없었던 셈이다. 『성리설집록』 또한 약 20x12cm 가량의 소형 필사본으로, 내용을 깨알같이 적어 휴대에 용이하도록 했다. 『성리설집록』은 조선에서 『성리대전서』, 『주자어류』 등의 주요 서적을 직접 학습·열람하지 않고도 이를 초록한 책판을 공부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식을 얻은 양상을 보여준다. 조선의 사상사·문화사적 흐름 속에 서적의 직접 유통과 병존하는 지식의 전파 방식이 존재했다는 명확한 증거이다.



<그림 14> 王羲之體 草書의 ‘能’과 ‘然’

4. 결 론

본고는 과거 시험의 참고서 역할을 한 일련의 유서들을 '策括'류 類書로 범주화하고, 그 대략적인 특징을 살폈다. 물론 이는 사후적인 분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明若觀火한 경계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특성을 다각도에서 고찰함으로써 이들 유서의 편찬 목적과 지식 세계 형성에 있어서의 역할을 보다 분명히 인지하고자 했다. 책괄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A) 정보의 집록

- (ㄱ) 책괄은 典章制度和 時務에 관한 내용을 주로 수록했다. 이것은 對策文에 주로 출제된 정치, 민생, 예악 등의 문제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이다. 小科 生員試를 대비하기 위해 사서삼경의 주제를 정리한 유서 또한 책괄의 하위 양식이다.
- (ㄴ) 집록된 정보는 經史의 고전과 더불어, 濂洛關閩의 宋代 성리학자들의 학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책괄은 모든 분야와 학설에 대한 博學을 추구하지 않고, 과거에 출제되는 官學의 학설에 집중했다.
- (ㄷ) 다양한 원전을 활용하되, 모든 자료를 1차인용하지 않고, 편찬의 편의를 위해 이전의 全集이나 유서를 충분히 활용했다. 특히 『性理大全書』의 영향이 두드러진다. 다만 정밀한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용에 오류가 많았다.
- (ㄹ) 경전, 註疏 및 類書의 권위적 언설을 충실히 집록하고, 편찬자 개인의 按說과 評語는 첨부하지 않았다.

(B) 분류

- (ㄱ) 대체로 '門'의 분류항목을 두어, 조선 유서의 지식 분류 방식을 참고했다.
- (ㄴ) 天道門, 天文門 등으로 시작해서 국가의 典章制度和 경제, 문화를 아우르는 분류항목을 두었다.
- (ㄷ) 대분류항목은 두지 않고, 분류항목 아래에 표제어를 수록하는 간략한 구조를 취했다.
- (ㄹ) '用人'과 '儒學(學行)'에 대해 독립된 항목을 두었는데, 對策文에 해당 주제가 빈번히 출제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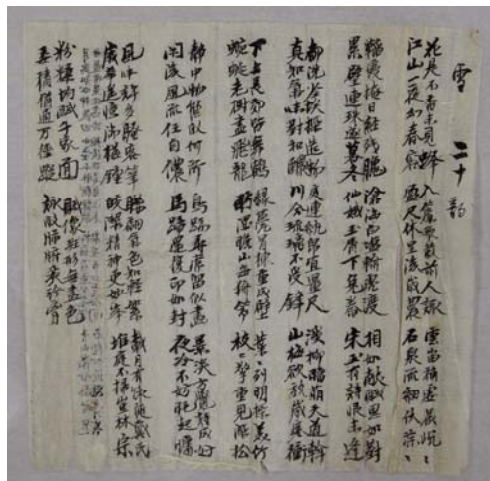
(C) 제작 및 유통의 특성

- (ㄱ) 편찬자와 간행지, 간행 시기가 알려져 있지 않다. 상업적 목적에 의해 간행되거나, 개인, 가문, 학과 내의 학습을 위해 제작되어, 편찬자의 저자의식이 희박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 (ㄴ) 간행본은 다양한 판종으로 제작되어 널리 유통되었으며, 개인 제작 책괄이 가문 또는 학과 내에서 필요에 의해 필사되기도 했다.
- (ㄷ) 판본에 따라 크기와 行字數가 다른 경우도 있으나, 많은 수가 소형으로 제작되어 휴대 및 보관에 용이했다.

이상과 같이 책괄의 특성을 개괄했다. 책괄은 당대 조선에 유통된 참고서로서, 지식 세계의 기반을 형성하는 서적군이다. 책괄은 중국의 권위 있는 유서와 경전 주석서, 중국 및 조선 학자들의 문집을 모두 갖추기 어려웠던 일반 지식인들이 조선 지식 세계에서 ‘상식’으로 받아들여지는 중요한 서적과 그 정보를 손쉽게 학습하는 도구였다. 책괄에 빈번히 인용된 『성리대전서』, 『고금사문유취』 등의 서적은 당대 지식 세계의 경계선을 형성했다. 그러나 뛰어난 학자들은 책괄이 제시하는 경계선을 돌파해, 明清과 조선의 넓은 학문 속에서 날개를 펼쳤다. 經學을 중심으로 조선 후기 지식 세계의 발전·변화를 고찰하기 위해, ‘책괄’류 유서가 어떠한 지식·정보를 집적했으며,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화했는지 밝히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책괄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함으로써 기존 지식 세계의 성격을 보다 명확히 한다. 첫째로, 본고에서 제한적으로 수행한 인용 서적 분석을 經學 항목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해서 경학 상식의 경계선을 분명히 제시할 것이다. 둘째로, 『文彙』, 『瑣說類纂』 등, 책괄의 구성 방식을 따라 편찬자의 학설을 재조직한 類說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로, 실제 大小科의 試題와 답안지에서 책괄의 영향을 포착할 것이다. 현재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가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科擧 관련 문헌을 집대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후속 연구에 있어서 해당 프로젝트의 연구 성과로부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책괄의 인용에 관한 자료 하나를 소개하면서 본고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필자는 2019년 7월에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의 자료 조사 작업으로 일본 교토대 부속도서관의 서적을 열람하던 중, 『玉纂』 권7-9 1책 零本을 확인했다. 여기에 얇은 楮紙에 적은 詩가 책갈피로 끼워져 있었다. 두 句씩 對를 이루는 鴛鴦雙對格에 3行으로 적혀있어, 科詩의 답안지와 매우 유사한 형태였다. 제목은 『雪(二十韻)』이다.



<그림 15> 교토대본 『玉纂』에 끼워진 「雪(二十韻)」 필사지

「雪(二十韻)」
 花是不香未見蜂, 江山一夜幻春容. ○●●○●●◎, ○○●●○○◎.
 入簾歌發前人詠, 盈尺休呈後歲農. ●○○●○○●, ○●○○●●◎.
 雲岫補虛藏沉沉, 石泉流細伏淙淙. ○●●○○○○, ●○○●○○◎.

靄霞掩日經殘臘, 累壁連珠遂暮冬. ○○●●○○●, ●●○○●●◎.
 滄海白塩輸處渡, 仙娥玉屑下兔春. ○●●○○●●, ○○●●○○◎.
 相如獻賦思如對, 宋玉有詩恨未逢. ○○●●○○●, ●●●○○●◎.

都洗塵埃探造物, 眞知氣味對和醞. ○●○○○●●, ○○●●○○◎.
 庭連紈帛宜量尺, 川合琉璃不受鋒. ○○○●○○●, ○●○○●●◎.
 溪柳暗萌天道幹, 山梅欲放歲寒衝. ○●●○○●●, ○○●●○○◎.

下上長郊皆舞鶴, 蜿蜒老樹盡飛龍. ●●○○○●●, ○○●●○○◎.
 緣蔓冒棟重成壁, 昞濕瞻山每倚籠. ●○○●○○●, ●●○○●●◎.
 葉葉列明探美竹, 枝枝擎重見深松. ●●●○○●●, ○○○●○○◎.

靜中物態取何所, 閑後風流任自儂. ●○○●●○○, ○●○○●●◎.
 鳥跡尋常留似畫, 馬蹄還復印如封. ●●○○○●●, ●○○●○○◎.
 墨淡方覺詩成好, 夜冷不妨旡起慵. ●●○○○○●, ●●●○○●◎.

風味許多騷客筆, 歲華遙憶漏樓鍾. ○●●○○●●, ●○○●○○◎.
 聯翮氣色知輕絮, 皎潔精神更妙峰. ○○●●○○●, ●●○○●●◎.
 載月有懷隨戴氏, 堆庭不掃豈林宗. ●●●○○●●, ○○●●○○◎.

粉糝均賦千家面, 委積猶通萬徑蹤. ●●○●○○●, ○●○○●●◎.
 賦像班形無盡色, 詠歸肺腑爽衿胸. ●●○○○○●, ●○○●○○◎.

●은 仄聲, ○은 平聲, ◎은 平聲韻을 표시한다. 近體詩의 七言排律을 늘린 형태로, 일종의 七言長律이다. 제목에는 ‘二十韻’이라고 되어있으나, 실제로는 첫 구에 首句押韻을 했으므로 ‘二十一韻’이다. 이것은 습작 科詩로 보인다. 평성 冬운을 사용했는데, 제4연에 韻目인 ‘冬’을 운자로 사용했다. 제시된 운목을 제4연에 사용해서 압운하는 것은 조선 과시(東詩)의 특징이다. 실제로는 詩題(試題)로 제시된 詩句 중 한 글자를 뽑아 운자로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 예를 들어 “淸江一曲抱村流”가 시제로 출제되면, 이 7자 중 한 글자를 뽑아(得) 운목으로 쓰고, 그 글자를 제4연에 배치한다. 그런데 작자는 이러한 과정 없이 임의로 ‘冬’을 운자로 뽑아 창작을 연습했다. 다만 이 시는 粘을 고의적으로 파괴하고 매 연을 卍起式으로 구성하는 조선 후기 과시의 형식을 따르지 않고 있어, 古詩에서 東詩로 科詩의 형식이 정착되어가는 과정의 과도기적인 형태로 보인다.

이 시는 2·4·6不同과 粘對를 엄격히 지키고 있고, 많은 전고와 시어를 활용해서 對偶를 맞추었다. 그러나 매우 작위적이고 한 연 내에서도 의미가 연결되지 않으며, 시의 주제가 간단함에도 중복되는 意象과 글자가 매우 많아, 풍격이 낮다. 『駢字類編』 등의 對偶 詩語集이나 유서를 베껴 억지로 시어의 卍仄을 맞춰가며 지은 것이다. 『옥찬』에 끼워져 있던 이 시는 『옥찬』의 ‘雪’ 항목을 참조해서

창작되었다. 『옥찬』에는 謝惠連(397-433)의 『雪賦』 일부가 수록되어 있다.⁶²⁾

(『玉纂』 天地門 ‘雪’ 항목 중) ○조나라 민요[曹風]에 麻衣에 색 비기고, 초나라 민요에 『幽蘭曲』에 곡조 째했네. 습지 걸논질하면 만경 들관 흰 비단 같고, 산 바라보면 천개 봉우리 모두 새하얗네. 누대는 겹겹 벽옥[璧]같고, 큰길은 이어진 옥[璠] 같네. 뜰에 옥[瑤] 계단 늘어섰고, 숲에 옥[瓊]같은 나무 우뚝 솟았네. (○曹風以麻衣比色, 楚謠以幽蘭儷曲. 昞隰則萬頃同縞, 瞻山則千巖俱白. 臺如重璧, 逵似連璠. 庭列瑤階, 林挺瓊樹.)

『雪』의 제11연 “용마루에 쌓이고 들보 덮어 몇 겹 벽 이루니, 습지 걸논질하고 산 바라보며 매번 대바구니에 기대네.(緣薨冒棟重成壁, 昞濕瞻山每倚籠.)”라는 구절은, 『옥찬』에서 인용한 『설부』를 보고, 그 중 다소 궁벽한 典故인 “昞濕瞻山”을 詩作에 활용했다. 이 시는 문학적 수준은 낮지만, 『옥찬』이 실제 科詩 학습의 참고서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고려대본 『경사집설』(만송 E1 A6B 1-7)에도 이와 같은 습작시 두 편이 끼워져 있다. 책팔은 조선 지식 세계의 기저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서적 자체로도 흥미롭지만, 이를 둘러싼 문화사·사상사적 맥락을 파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도 연구 가치를 지닌다.



<그림 16> 고려대 소장 木活字本 『經史集說』에 끼워진 습작시

62) 『설부』는 『文選』 賦篇에 수록되어 있고, 『藝文類聚』, 『太平御覽』, 『古今事文類聚』, 『山堂肆考』, 『淵鑑類函』 등 주요 중국 유서에도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經史集說」.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經書類抄」. 국립중앙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玉纂」. 오사카부립나카노시마도서관, 교토대학 도서관, 고려대학교 도서관 소장본.
「性理說集錄」. 서울역사박물관 소장본.
歐陽詢 편. 「藝文類聚」. 문연각사고전서본.
金堉. 「類苑叢寶」.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金正默. 「過齋遺稿」. 고전번역원 영인본.
黎靖德 편. 「朱子語類」. 문연각사고전서본.
劉應李 편. 「翰墨全書」. 베이징대학 소장본.
李令翊. 「信齋集」. 고전번역원 영인본.
李昉 등 편. 「太平御覽」. 문연각사고전서본.
李彥迪. 「晦齋集」. 고전번역원 영인본.
李種徽. 「修山集」. 고전번역원 영인본.
朴性源. 「華東正音通釋韻考」. 고려대학교 소장본.
白居易, 孔傳 등 편. 「白孔六帖」. 문연각사고전서본.
徐有榘 등 편. 「鏤板考」. 규장각 소장본.
蘇軾 지, 성백효 역. 「唐宋八大家文鈔」 議學校貢舉狀. 서울: 전통문화연구회, 2012.
楊萬里. 「誠齋集」. 문연각사고전서본.
王圻 등 편. 「三才圖會」.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5.
王申子. 「大易緝說」. 문연각사고전서본.
王應麟. 「玉海」. 문연각사고전서본.
熊節 편. 「性理群書句解」. 문연각사고전서본.
張英 등 편. 「淵鑑類函」. 문연각사고전서본.
趙汝愚 편. 「宋名臣奏議」. 문연각사고전서본.
朱熹. 「晦庵集」. 문연각사고전서본.
陳邦瞻 편. 「宋史紀事本末」. 문연각사고전서본.
陳元靚 편. 「士林廣記」. 北京: 中華書局出版, 1999.
崔漢綺. 「人政」. 동양문고 소장본.
祝穆 편, 富大用, 祝淵 증보. 「古今事文類聚」. 문연각사고전서본.
彭大翼 편. 「山堂肆考」. 문연각사고전서본.
韓元震. 「南塘集」. 고전번역원 영인본.

胡廣 등 편. 『性理大全書』. 문연각사고전서본.

『文時』. 개인 소장 필사본.

『文彙』.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性理喻林』.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瑣說類纂』. 규장각 소장본.

『寅撮』.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廷考』. 장서각 소장본.

『增廣詩韻集成』. 香港: 文光, 1949.

고려대학교 해외한국학자료센터 <<http://kostma.korea.ac.kr/>>

국립중앙도서관 <<http://www.nl.go.kr/>>

규장각한국학연구원 <<http://e-kyujanggak.snu.ac.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김영선. “韓國 類書의 書誌學的 研究.”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03.

김인규.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성립과 주례 이념.” 『동방학』 38(2018. 2). 231-258.

박문열. “韓國의 土活字印刷術에 관한 研究.” 『서지학연구』 39(2008. 6). 5-29.

심경호. 『安平』. 서울: 알마, 2018.

심경호. 『한국한문기초학사』. 과주: 태학사, 2012.

심규식. “靑松沈氏 古文獻을 통해 본 樛村 沈鎬의 생애와 학문.”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18.

심재권. “조선조 과거시험과목인 책문의 내용 및 주제 분석.” 『한국행정사학지』 37(2015. 12). 183-208.

안소연. “조선시대 經世觀의 변화 연구 - 策問·對策 분석을 중심으로 -.”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2018.

안춘근. “匏活字 存否에 대하여.” 『서지학보』 3(1990. 12). 81-90.

옥영정. “국내 현존 宋·元本の 조사와 書誌的 분석.” 『서지학연구』 52(2012. 9). 249-293.

劉葉秋 지, 김장환 역. 『中國類書概說』. 서울: 학고방, 2005.

윤병태.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국회도서관, 1968.

윤선영. “正祖代 四書疑 試題 小考.” 『태동고전연구』 37(2016. 12). 35-77.

윤선영. “조선 후기 과거(科擧) 생원시(生員試) 문답의 한계점 고찰 - 사서의(四書疑) 과목을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45(2019. 5). 395-444.

이래중. “疑義의 形式과 그 特性.” 『대동한문학』 39(2013. 12). 127-158.

이상욱. “조선 과문(科文)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5.

이정호. “『經書類抄』의 引用方式에 관한 小考.” 『서지학연구』 54(2013. 6). 381-408.

- 최환.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I).” 『중국어문학』 41(2003. 6). 367-404.
 최환. “한국 類書의 종합적 연구(II).” 『중어중문학』 32(2003. 6). 65-97.
 최환. 『한·중 유서문화 개관』. 경산: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8.
 陳惠美. 『<古今圖書集成·經籍典>徵引文獻考論』. 臺北: 萬卷樓, 2017.
 張祝平. “解讀域外漢籍与古代文學研究的拓展—以研究明代文學二个問題爲例—.” 『中國學術文學與朝鮮漢文學』 대동한문학회 발표자료집(2016. 1). 149-170.
 鄭吉雄. 『浙東學術研究』. 臺北: 國立臺灣大學出版中心, 2017.
 鮎貝房之進. “支那及び朝鮮の古活字に就いて.” 『書物同好會冊子』 제1호(1937. 11). 385-389.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i Juyi, Kong Chuan. *Baikong Liutie*. Siku Quanshu.
 Chen Bangzhan. *Songshi Jishi Benmo*. Siku Quanshu.
 Chen Yuanjing. *Shilin Guangji*. Zhonghua Book Company, 1999.
 Choe Hangi. *Injŏng*. Possessed by Toyo Bunko.
 Gyŏngsa *Jipsŏl*.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 University.
 Gyŏngsŏ *Yuch'o*.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Korea University.
 Han Wŏnjin. *Namdangjip*.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Hu Guang, etc. *Xingli Daquanshu*. Siku Quanshu.
Inch'wal.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Jŏnggo. Possessed by Jangseogak Archives.
 Kim Chŏngmuk. *Gwajaeyugo*.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Kim Yuk. *Yuwŏn Ch'ongbo*.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Li Fang. *Taiping Yulan*. Siku Quanshu.
 Liu Yingli. *Hanmo Quanshu*. Peking University.
Munhwi.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Munshi. Private Collection.
Okch'an. Possessed by Osaka Prefectural Nakanoshima Library, Kyoto University, Korea University.
 Ouyang Xun. *Yiwen Leiju*. Siku Quanshu.
 Pak Sŏngwŏn. *Hwadong Jŏngŭm T'ongsŏgungo*. Korea University.

- Peng Dayi. *Shantang Sikao*. Siku Quanshu.
Seo Yugu. *Nup'an'go*. Possessed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Sŏngni Yurim. Possess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Sŏngnisŏl Jimnok. Possessed by Seoul Museum of History.
Su Shu, etc. *Tangsong Badajia Wenchao*. Jŏngt'ongmunhwayŏnguhoe, 2012.
Swaesŏl Yuch'an. Possessed by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Wang Qi. *Sancai Tuhu*. Shanghai Classics Publishing House, 1985.
Wang Shenzi. *Dayi Jishuo*. Siku Quanshu.
Wang Yinglin. *Yuhai*. Siku Quanshu.
Xiong Jie. *Xingli Qunshu Jujie*. Siku Quanshu.
Yang Wanli. *Chengzhaiji*. Siku Quanshu.
Yi Eonjeok. *Hoejaejip*.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Yi Jonghwi. *Susanjip*.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Yi Yeongik. *Shinjaejip*.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Zengguang Shiyun Jicheng. Wenguan Publishing Company, 1949.
Zhang Ying. *Yuanjian Leihan*. Siku Quanshu.
Zhao Ruyu. *Song Mingchen Zouyi*. Siku Quanshu.
Zhu Mu, etc. *Gujin Shiwen Leiju*. Siku Quanshu.
Zhu Xi, Li Jingde. *Zhuzi Yulei*. Siku Quanshu.
Zhu Xi. *Huiyanji*. Siku Quanshu.

Center for Overseas Resources on Korean Studies. <<http://kostma.korea.ac.kr/>>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B. <<http://db.itkc.or.kr/>>

Kyujanggak Institute for Korean Studies. <<http://e-kyujanggak.snu.ac.kr/>>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http://www.nl.go.kr/>>

Ahn, Chun Geun. 1990. "Phohwalja Jonbue Daehayeo." *Seojihakbo*, 3: 81-90.

Ahn, So Yeon. 2018. *The study on change of statecraft in the Joseon Dynasty: focusing on an analysis of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answer of examination*. Ph.D dissertation. Kookmin University.

Choi, Hwan. 2003. "A Study of the Korean Old Encyclopaedias (I)."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41: 367-404.

Choi, Hwan. 2003. "A Study of the Korean Old Encyclopaedias (II)." *Korea Journal of Chinese*

Language and Literature, 32: 65-97.

- Choi, Hwan. 2008. *Han · Jung Yusŏ Munhwa Gaegwan*. Gyeongsan: Yeungnam University Press.
- Kim, In-Gyu. 2018.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background of GyeongGukDaeJeon and the idea of JuRye." *Eastern Classic Studies*, 38: 231-258.
- Kim, Young Son. 2003. *A Bibliographic Study on Yuso*. Ph.D dissertation. Chung-ang University.
- Lee, Junghyo. 2013. "A Study on Quoted Style of The Kyungseoryucho."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4: 381-408.
- Lee, Rae-Jong. 2013. "Form and the characteristics of Uui." *Daedonghanmunhak*, 39: 127-158.
- Lee, Sang Wook. 2015. *Exam Writings in the Chosŏn Period*. Ph.D disseration. Yonsei University.
- Liu Yejiu wrote, Kim, Janghwan translated. 2005. *Junggook Yusŏ Gaesŏl*. Seoul: Hakgobang.
- Ok, Young Jung. 2012. "A Inquiry and Bibliographical Analysis of Old Books from Sung and Yuan Dynasties Existed in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2: 249-293.
- Park, Moon-Year. 2008. "A Study on the Technique of Printing with Movable Soil-Types in Kore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39: 5-29.
- Shim, Jae Kwon. 2015. "An Analysis of Contents and Subject of a Chaekmoon (Policy Questions) of Imperial Examination Subjects in the Joseon Dynasty Era." *Journal of Association for Korean Public Administration History*, 37: 183-208.
- Sim, Kyu Sik. 2018. *An Analysis on Jeochon Sim Yuk's Life and Scholarship: Through Cheongsong Sim Family Old documents*. MA thesis. Korea University.
- Sim, Kyung Ho. 2012. *History of Philology in Traditional Korea*. Paju: Thaeaksa.
- Sim, Kyung Ho. 2018. *Anpyeong*. Seoul: Alma.
- Yoon, Byeong Tae. 1968. *Hanguk' Gosŏ Jonghap' Mongnok* (The Complete List of Old Books in Korea). Seoul: National Assembly Library of Korea.
- Yoon, Sun-young. 2016. "A study on the examination question of saseoui during the reign or King jeongjo." *Tae-dong Yearly Review of Classics*, 37: 35-77.
- Yoon, Sun-young. 2019. "A study on question and answer's limitation of saengwon civil service examination in late Joseon period: Focused on Saseoui Exam." *Journal of Korean Culture*, 45: 395-444.

[부록] 『玉纂』의 분류항목과 표제어

권	항목	표제어
卷之一	天地門	天地, 太極, 陰陽變異附, 五行律呂附, 萬物, 天地萬物造化論序, 天地萬物造化論, 四時, 春, 夏, 秋, 冬, 寒暑, 晝夜, 四方, 日, 月月蝕附, 星辰, 閏月, 風, 雲, 雷電, 虹霓, 雨, 雹, 雪, 霜露, 霧霞, 烟氣, 火, 水, 水災, 旱災, 地震, 災異, 變化, 詭言, 應天, 體天, 祥瑞, 氣數, 曆象, 漏刻, 天時人事, 天文, 地理, 區域地圖, 國都, 外國, 邑圖
卷之二	山水門	海, 潮汐, 水, 河, 江湖, 池塘, 井泉, 冷泉, 湯泉, 瀑布, 石, 山, 山水, 遊玩, 園林, 山后
	花草木菜門	花, 桃花, 李花, 梨花, 杏花, 海棠, 紫薇, 辛夷花, 蘆花, 桂花, 牡丹, 芍藥, 宜男, 枇杷, 梅花, 菊花, 蓮花, 草, 蘭, 芝草, 萍草, 萱草, 菖蒲, 芭蕉, 荻, 蓬, 茅, 竹, 松柏, 木, 秋葉, 梧桐, 槐木, 楊柳, 荊棘, 果, 橘柑, 葡萄, 棘, 瓜, 李, 來禽, 杏, 荔枝, 鴨脚, 桃, 菱芡, 櫻桃, 石榴, 梨, 木果, 茶, 菜, 治圃
卷之三	鳥獸群虫門	禽獸, 獅, 獬豸, 角端, 駝, 牲畜, 畜孳, 龍, 虎, 牛, 馬, 驢, 羊羔, 樵牧菑蒿, 犬, 豕, 熊, 鹿, 猿猴, 象, 犀, 狐狸, 鼠, 猫, 燕, 杜鵑, 猓獐, 鳳凰, 龜鼈, 鶴, 鴻雁, 鷹鵠, 雉兔, 鷄, 蟹, 魚, 鯨, 漁釣, 網罟, 田獵, 蟲, 蜘蛛, 蛩, 促織, 蠅, 鷓鴣, 孔雀鸚鵡, 雀, 鳩, 鴛鴦翡翠, 反舌, 鵝鴨, 烏鵲, 蜜蜂, 蝴蝶, 蜻蜓, 蟬, 螢, 蛙, 蚯蚓, 蠹, 虱, 蚊, 蟻, 蛇, 罵
	術藝門	卜筮, 陰陽禁忌, 祈禱, 呪咀, 巫覡, 談命, 數學, 算, 風水, 望氣, 博物, 知音, 陰符, 謠讖, 圖畫, 山水, 松, 竹, 梅, 花, 草蟲, 書畫, 草書, 飛白, 御書, 射, 御, 相術, 異端, 佛法, 佛像, 度牒, 尼, 禪僧, 道士, 神仙, 求仙, 雜技, 雜戲, 搏戲, 圍碁, 象戲, 鞦韆, 雙陸
卷之四	文藝門	經傳, 易, 書, 詩, 春秋, 周禮, 四書, 大學, 中庸, 論語, 孟子, 傳註, 書籍, 擬經之借, 著書, 文章, 典文, 文體, 詞章, 賦, 詩, 音韻, 箴銘, 御製
	科制門	文科, 武科, 登第, 下第, 考官
	節序門	元日, 人日, 上元, 寒食, 清明, 社日, 上巳, 端午, 伏, 七夕, 中元中秋, 重陽, 臘, 除夕, 節祀, 聖節
	帝王經國立制門	正統, 正朔, 色尚, 國號, 年號, 歷年, 尊號, 封禪, 宗廟, 社稷, 朝廷, 朝聘, 接使, 使命, 朝賀儀, 朝貢, 進獻, 遠物
卷之五	帝王家政門	修身, 后妃, 後宮, 世子, 廢復, 處變, 聖孝, 王子, 宗室, 外戚, 家範
	帝王立政門	唐虞治, 三代治, 君道, 臣道, 君臣, 創業守成, 撥亂興衰, 國勢, 治亂安危, 終始, 防微, 憂勤, 威權, 權經, 紀綱, 綱目, 本末治要, 難易, 寬猛, 苛刻, 政治, 修政養民, 愛民, 得人心, 決壅通情, 求言, 封筭, 密啓, 名實, 務實, 清儉, 奢侈
卷之六	教化門	人倫, 忠孝, 節義, 褒獎, 錄後, 教化, 名分, 文廟從祀, 學校, 視學, 釋奠, 學官, 學生, 書院, 賢祠, 蒙養, 教育, 士氣, 士風, 古今, 習尚, 文質, 風俗
	百官門	宰相, 權臣, 敬大臣, 老成, 勳臣, 功臣不終, 百官, 文武, 內外官, 筵官, 輪對, 師傅, 諫官, 納諫, 惡諫, 史官, 宦官, 御使, 監司, 守令, 居官清慎, 居官貪暴, 居官端感, 吏胥, 譯官, 賣官, 世官, 品秩, 官爵
卷之七	用人門	人才, 四方人才, 隱逸, 名望, 薦, 舉主, 求賢, 禮賢, 知人, 用人, 銓官, 朋黨, 邪正, 剛明, 公私, 賂遺, 奔競, 冗濫, 超擢, 疑信, 委任, 久任, 黜陟, 考績, 俸祿, 恩賜, 落職左降, 宣召復職, 起復
	進退仕止門	出處, 窮通貴賤, 榮辱, 名利, 時命, 拘辱, 淹滯, 辭爵, 恬退, 致仕, 見幾, 休暇呈告
卷之八	禍福門	被讒, 毀謗, 恩怨, 仇讐, 禍福, 避禍, 士禍, 積善, 陰報
	學行門上	仁, 義, 智, 愚, 信, 理氣, 性命心情, 心, 喜怒, 憂悲, 樂, 愛惡, 是非, 慾, 思, 畏, 耻, 志, 氣, 動靜, 省察, 格物窮理, 存養, 克復, 言行兼知行, 讀書, 學, 敬
卷之九	學行門下	誠, 忠恕, 中, 和, 平, 德, 敬鬼神, 道, 道統, 氣像, 威儀, 器量, 心迹, 公論, 過失, 悔過, 節操, 守拙, 辭受, 禮讓謙虛, 儒行, 留名傳後, 君心, 君敬, 君誠, 君學, 君德, 王伯,
	治生門	田居, 農器, 農, 穀, 豐凶, 飢寒, 貨殖, 商賈, 買賣, 券契, 交市, 貪財, 輕財, 貧, 富

권	항목	표제어
卷之十	理財門	戶籍, 田制, 籍田, 親蠶, 水利, 漕運, 倉庫, 內帑, 積儲, 荒政, 賑窮, 會計, 地官, 節財用, 租稅, 征賦, 徭役, 權法
	財寶門	珍寶, 珠玉, 金, 坑冶, 鐵, 鹽, 錢, 布帛錦繡, 木綿, 雜幣, 炭薪, 燈燭, 油, 香
	宴享門	聘享之禮, 御宴, 逸遊, 宴飲, 壽宴
卷之十一	酒食門	飲食, 餅, 酒, 鄉飲酒, 崇飲, 酒器
	兵制門	兵食, 糧餉, 屯田, 宿衛, 征戍, 斥埃烽燧, 反間, 陳法, 兵書, 犒賞, 兵政, 籍軍, 募兵士兵, 免役除軍
	兵技門	軍器, 旌旗鼓角, 甲冑, 弓矢, 兵車, 符節, 步騎, 火器, 訓練
卷之十二	戰守門	征討, 黷武, 人和, 勝敗, 強弱, 舟戰, 據險, 城池, 守城, 戰守和, 軍律
	任將門	智術, 勇猛, 仁義將, 儒將, 降將, 將帥, 愛士卒, 將權, 馭將
	交隣事大門	事大, 交隣, 和好, 盟, 許昏, 夷狄, 內修, 備禦, 恩威, 審幾勢, 博謀, 恢復, 忘讐
卷之十三	兵禍門	喪亂, 播遷, 艱困, 避兵, 覲王, 義師, 救援
	法制門	法律, 奉法, 變革, 命令, 禁令, 賞罰, 聽訟, 法官, 刑法, 囚繫, 酷刑, 省刑, 冤獄, 斷獄, 贖罪, 反逆, 誣告, 盜賊, 豪強遊俠, 匿名書, 訕上, 訊臣罪, 貶謫, 流徙量移, 赦令
卷之十四	第宅門	宮殿, 樓臺, 亭榭, 第宅, 門戶, 園囿, 官舍, 寺觀, 佛塔, 土木
	道路門	邸驛, 逆旅, 橋梁, 道路
	工政門	舟, 車, 工匠, 梓匠, 瓦甃, 鐵冶, 女工, 織, 染綵, 漆, 工官
	冶容門	沐浴, 粧容, 梳頭, 鏡, 首飾, 妍醜長短
	器用門	紙, 硯, 筆, 墨, 鼎釜, 度, 量, 衡, 扇, 刀, 劍, 席, 枕, 鑰, 器皿, 匙箸, 鞭轡, 白杵, 簾
卷之十五	四野門	郊野, 泥, 沙, 塵
	記性門	聰明, 善忘
	疾病門	疾病, 瘟疫, 蠱替, 問疾, 醫, 鍼藥, 鬼妖
	死生門	壽夭, 養生, 元氣, 死生, 環生
	婦人門	婦行, 孀婦改嫁淫婦, 喪妻, 出妻, 妬婦, 怨婦, 妾, 娼妓, 女色
卷之十六	禮樂門	禮樂, 音樂, 樂器名, 淫樂, 琴, 瑟, 笙, 笛, 鍾, 鼓, 磬, 投壺, 倡優, 綵棚, 禮樂官
	章服門	帝王章服, 衣服, 冠儀, 冠巾, 帶, 履, 被, 珮玦環
	仗儀門	儀仗, 行幸, 微行, 輦蓋, 御寶印信, 板笏, 几案床榻, 杖, 輦, 靴鞍, 屏風, 帷帳
	昏禮門	帝王大昏, 昏姻, 昏變禮
	喪葬門	帝王喪禮, 死喪儀, 弔祭賻, 五服持喪, 居喪吉禮, 帝王山陵, 墳墓, 葬埋, 掩骼, 改葬, 帝王碑銘, 碑誌, 恩服追服過服, 居喪越禮, 祠堂, 神主, 宗法, 立後, 帝王祭禮, 天地山川群禮, 城隍旅祭, 配享, 神祠, 淫祀, 國忌私忌, 墓祭, 祭, 祭器服
卷之十八	贈典門	帝王追王, 諡法, 追贈, 官封婦人
	人事門	精, 氣, 神, 形貌, 臟腑, 血脈, 膽, 耳目, 口舌, 齒, 髮, 鬚髯, 手足, 音聲, 方言, 言語, 口辯, 形影, 夢, 眠睡, 嘯, 笑, 哭泣, 歌, 舞, 生辰, 稟生之異, 姓氏門地, 名字, 名諱, 稱號
卷之十九	人倫門	祖先, 父母, 子孫, 兄弟, 孝友, 孝感, 夫婦, 齊家, 翁婿, 嫡孽, 奴婢, 陸族, 賓客, 贊謁, 拜揖, 慰賀朝賀, 書簡, 報施, 贈贖, 離別, 鄉黨, 遷徙, 衰老, 年齒, 養老
	師友門	師, 弟子, 友, 故交, 市交, 絕交

